

韓國工業立地の 展開過程 (Ⅱ)

—解放前 工業地域構造의 動態的 軸—

邢 基 柱

〈目 次〉

1. 序 論	3. 解放前 工業立地變動의 要因
2. 解放前 工業立地의 變動	(1) 要因抽出의 問題點
(1) 立地變動의 개념과 그 測定	(2) 早期成長 地域과 先發工業의 立地
(2) 立地變動의 方向과 特徵	(3) 湖南地方 工業停滯의 要因
(3) 人口配分과 工業配分의 地域間 變動	(4) 後期 成長地域과 重化學工業의 立地
(4) 立地變動과 工業構造	(5) 小 結
(5) 工業地域構造의 動態的 軸	

1. 序 論

筆者는 앞서 발표한 論文에서 日常下 植民地의 經濟關係의 變遷이 産業 및 工業構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명백히 한 바 있다.¹⁾ 이것은 어디까지나 植民地의 工業立地 展開過程의 上部 構造로서 미리 구명되어야 할 前段階 作業이었던 것이다. 이번의 研究는 解放前 工業構造의 變化가 地域에 어떻게 投影되었는지를 主題로 삼았다. 産業이나 工業構造의 全體的 變化가 동시에 地域構造의 變化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工業地域構造의 時間的 變動이 어떤 명확한 類型으로 捕捉될 때, 筆者는 이것을 ‘動態的 軸’이라 칭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具體的 要因의 解明까지를 本 研究의 任務로 삼았다.

工業地域構造의 動態的 軸은 國民經濟 내지 植民地 經濟 全體를 共通分母로 하여 地域工業의

擴大 내지 縮小 過程을 巨視的으로 分析할 때 비로소 捕捉할 수 있고, 長時間에 걸친 地域間 工業成長을 對象으로 取扱할 때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다. 先學의 여러 研究에는 立地變動을 主題로 삼은 내용이 많으나, 地域間 差別成長에 의한 ‘工業地域構造의 動態的 軸’을 문제로 삼은 研究는 없는 것 같다. V.R. Fuchs는 1929년에서 1954년에 걸친 美國 製造業의 立地變動을 分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地域間 差別成長을 알아내는 統計的 處理이다.²⁾ 물론, Fuchs의 研究가 本質的으로 立地變動의 類型, 즉 ‘工業地域構造의 動態的 軸’을 찾기 위한 研究가 아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現實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나 그의 根本思想이 「工業의 地域間 差別成長」, 그리고 이것이 「國家 全體의 實質的 工業成長에 相應한 特定地域의 假想成長」을 比較의 尺度로 삼고 있는 점에서 援用할 價値가 있을 것 같다.

工業의 立地變動은 모든 條件의 時間的 變化에 따라서 혹은 敏感하게, 혹은 鈍感하게 나타

1) 邢基柱, 1975, “韓國工業立地の 展開過程 (I)”, 地理學 第12號, pp. 27~51.

2) Fuchs, V.R., 1963, *Changes in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29*, Yale University Press, pp. 39~43

나며, 어떤 지역은 비교적 일찌기 高度成長을 경험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비교적 나중에 高度成長을 경험하고 있다. 긴 세월이 걸친 이 같은 樣相은 오늘의 工業地域構造를 만든 기초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筆者는 1910년에서 1945년에 걸친 道別 工業物生産額³⁾을 토대로 하여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統計處理함으로써 工業地域構造의 動態的 軸을 찾아낸 다음,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립된 것인지를 각종 文獻資料를 바탕으로 分析하려는 것이다. 分析의 對象이 되는 地域은 道單位로 한 정했는데, 이것은 立地變動의 방향을 한층 巨視的인 立場에서 整理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下位地域에 存立할 것으로 예상되는 '動態的 軸'의 分析은 다음 段階의 研究課題로 미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解放 후 韓國 工業地域構造의 特質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단서가 될 것으로 思料되며, 궁극적으로는 現下 韓國 工業의 地域別 差別成長을 是正함에 있어서 有益한 資料를 제시하여 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2. 解放前 工業立地の 變動

(1) 立地變動의 概念과 그 測定

V.R. Fuchs⁴⁾는 地域間 工業의 差別的 成長을 곧 「相對的 立地變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立地變動과 立地移動의 概念을 區別할 필요가 있다. 工業의 立地를 微視的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가령 A 工場이 X 地域에서 Y 地域으로 移轉한 사실을 重要시한다. 이것은 立地移動이지 立地變動이 아니다. 立地變動(locational change)이란 工場의 實質的 移動이 되었건, 新設의 결과이건, 既存 工場의 擴張이 되었건, 또

는 生産의 擴大 결과이건 간에, 工業의 地域의 差別成長 즉 工業의 地域間 再配分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過程의 결과이던 간에 全體의 地域間에 있어서 生産의 縮小, 擴大나 業種間 比重의 變化로 표현되는 相對的 立地移動이 곧 立地變動이며, 어디까지나 集計的 概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똑같은 種類와 똑같은 規模의 工場이 서로 場所를 바꾼 경우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集計的 結果에는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V.R. Fuchs가 援用한 統計的 手法의 基本思想은 어디까지나 工業의 「地域間 相對的 差別成長」에 있다. 그리고, 비슷한 手法으로는 美國의 「地域別 相對的 工業化」를 測定한 W. Zelinsky의 V.P. factor가 있으나 最初의 發想은 D. Creamer의 Shift ratio에서 온 것이다.⁵⁾

V.R. Fuchs의 記數法은 다음과 같다.

$X_{si} = S$ 地域 i 産業의 基準年度 工業生産額,

$X_s = S$ 地域 全工業의 基準年度 生産額,

$X_i =$ 韓國 全體의 i 産業의 基準年度 工業生産額,

$X =$ 韓國 全體의 全工業의 基準年度 生産額,

이와 마찬가지로, 比較年度の 그것은 Y_{si} , Y_s ,

Y_i , Y 로 표시하며, 취급된 基準年度와 比較年度⁶⁾는 각각 1915~1920년, 1920~1925년, 1925~1930년, 1930~1935년 1935~1940년의 5個 年期이다. 한편, 假想生産額의 記數法은 다음과 같다.

$$\textcircled{1} H_s = X_s \frac{Y}{X}, H_{si} = X_{si} \frac{Y_i}{X_i}, H_s = \sum_i H_{si}$$

$$\textcircled{2} B_s = Y_s \frac{X}{Y}, B_{si} = Y_{si} \frac{X_i}{Y_i}, B_s = \sum_i B_{si}$$

假想生産額을 土台로 하여 「相對的 附加·損失」을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textcircled{3} Y_s - H_s = S \text{ 地域 全工業의 相對的 附加 혹은 損失額}$$

$$\textcircled{4} \frac{Y_s - H_s}{Y_s \text{ or } H_s} = Y_s - H_s \text{의 百分比}$$

3) 邢基柱, 1975, 前掲書, p. 35

4) Fuchs, V.R., 1963, op. cit., p. 32

5) Creamer, D., 1943, "Shift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dustrial Location and National Resources, U.S. National Resources Planning Board*, pp. 85~90, Zelinsky, W., 1958, "A method for measuring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activity," *Econ. Geogr.*, Vol. 34, pp. 95~126

6) 여기에서 基準年度, 比較年度란 initial year와 terminal year를 便宜上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⑤ $\sum_i \frac{|Y_s - H_s|}{2}$ = 韓國 全體工業의 純變動額,

⑥ $\sum_i \frac{|Y_s - H_s|}{2Y_s} = \sum_i \frac{|Y_s - H_s|}{2}$ 의 百分比,

⑦ $Y_{si} - H_{si} = S$ 地域 i 産業의 相對的 附加 혹은 損失,

⑧ $\frac{Y_{si} - H_{si}}{Y_{si} \text{ or } H_{si}} = Y_{si} - H_{si}$ 의 百分比,

⑨ $\sum_i \frac{|Y_{si} - H_{si}|}{2}$ = 韓國 i 産業의 純變動額,

⑩ $\sum_i \frac{|Y_{si} - H_{si}|}{2Y_{si}} = \sum_i \frac{|Y_{si} - H_{si}|}{2}$ 의 百分比

⑪ $\frac{1}{2} \left[\frac{Y_s - H_s}{Y_s \text{ or } H_s} + \frac{B_s - X_s}{B_s \text{ or } X_s} \right]$ = 工業構造로 調整한 S 地域의 相對的 附加와 損失率(%)

⑫ $\frac{1}{2} \left[\frac{H_s - Y_s}{H_s \text{ or } Y_s} + \frac{B_s - X_s}{B_s \text{ or } X_s} \right]$ = S 地域의 相對的 工業構造率(%),

여기에서, H_s 는 S 地域의 公業이 全國의 成長과 같은 成長을 했다고 가정할 때, 比較年度(terminal year)에 있어서 S 地域이 應당 차지해야 할 假想生産額이고, B_s 는 基準年度(initial year)에 있어서 應당 차지했어야 할 假想生産額이다. 그러므로 H_s 는 比較年度의 S 地域 實質生産額(Y_s)과 견주어 보는데 의미가 있고, B_s 는 基準年度의 그것(X_s)과 견주어 보는데 意味가 있다.

앞서 표시한 여러 가지 記數法 중에서 ④⑪⑫의 意味를 分別하여 둘 必要가 있다. ④는 S 地域 工業全體의 相對的 附加 혹은 損失을 百分比로 나타낸 것인데, 단 여기에서는 각 業種別 成長이 전혀 考慮되지 않은 aggregate value(總價)와의 關係에서 구하여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⑪은 ④와 마찬가지로 S 地域 工業全體의 相對的 附加 혹은 損失을 百分比로 나타내고 있지만 단 이것은 여러 지역의 公業이 S 地域과 같은 構造를 가질 경우의 假想生産額을 實地生産額과 비교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원래의 뜻은 'comparative gain or loss adjusted for industrial structure'이다.⁷⁾ 결국, 全國의 工業構造보다도 有利

한 工業構造를 가진 地域일수록 相對的 附加로 나타날 것이다. 가령, 1935~1940년에 있어서 平安南道の ④가 -6.1%이고, ⑪이 +6%라면 이렇게 說明된다. 즉 平南의 1940년도 工産額이 一定期間에 全國의 그것만큼 成長한 경우의 期待値보다도 6.1%의 損失(不足)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工業構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과인 것이고, 同期間에 平南의 工業構造를 고려한다면 平南의 1940년도 실지 工産額은 對全國의 期待値에 비해서 오히려 6.0%나 附加(超過)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 앞서 ⑫는 相對的 工業構造(comparative industrial structure)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만약에 S 地域의 各業種이 全國의 그것만큼 각각 成長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相對的 附加·損失이 있을 것이냐'⁸⁾를 意味한다. 단, 이것은 ⑪과는 달리 業種別 假想成長의 合計와 業種을 不顧한 aggregate value의 假想成長을 比較한 것이므로, 業種別로 算出한 對全國의 成長과 業種을 不顧한 對全國의 成長과의 差異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正數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地域의 '相對的 工業構造'가 그만큼 理想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⁹⁾ 平安南道에 있어서 1935~1940년의 相對的 工業構造는 11.8%의 損失(-)로 算出되는데 이것은 平南의 工業構造가 同 期間에 相對的으로 成長이 그만큼 둔한 業種으로 構成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記數法 ⑪과 ⑫는 다 같이 工業構造와 관련되어 있지만, ⑪은 他地域과의 構造의 balance가 고려된 것이고, ⑫의 경우에는 全國에 비해서 얼마나 有利한 業種으로 構成된 것이냐를 본 것이다. 여기에서 양자 모두가 正數로 나타난 경우면 두말할 것 없이 가장 favorable structure이다. 예의 平南은 이런 뜻에서 1935~1940년간의 公業에 관한 不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立地變動의 方向과 特徵

1915년에서 1940년까지를 5個 年期로 나누어

7) 여기에서는 $\frac{B_s - X_s}{B_s \text{ or } X_s}$ 는 $\frac{Y_s - H_s}{Y_s \text{ or } H_s}$ 의 逆算.

8) Fuchs, V.R., op. cit., p. 62

9) $H_s = H_s$ 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理想的」이란 記述의 편의를 위해서 使用한 말이다. Fuchs, V.R., op. cit., p. 11n 참조

각 지역의 假想的 工産物 生産額(H_s or B_s)을 算出한 후, 이것을 다시 比較年度の 실지 生産額(Y_s)과 比較한 결과 표 1과 같은 相對的 附加 혹은 損失率을 얻을 수 있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15~20 년간에 相對的 附加로 나타난 地域은 경기·충남·경북·평남·평북·강원의 6個地域이며, 最高 42%에서 1%까지의 附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1920년 현재 경기도의 실지 生産額(Y_s)은 약 6350만원이고, 假想生産額(H_s)은 약 5980만원이므로, 약 370만원의 플러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1920년도 경기도 실지 生産額에 대한 약 5%의 附加인 것이다. 결국, 1915~20년간 경기도의 공업에 관한 한 그만큼의 相對的 成長이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附加된 地域만큼의 損失을 본 地域이 있는데, 1915~20년 간을 예로 하면 표 1에서와 같이, 충북·전북·전남·경남·황해·함남·함북의 7個地域이다. 最高損失 46%에서 最下損失 3%까지로 計出되

며, 충북의 46% 損失 內譯은 다음과 같다. 즉, 1920년 현재 충북의 實地生産額은 약 493만원에 假想工産額은 918만원이므로, 충북은 全國的 成長 level을 기준으로 볼 때 425만원이 不足額인 것이다. 이것이 假想生産額 918만원에 대한 46%의 損失로 표현된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1915년에서 1940년까지를 5個年 期로 分割하여 整理한 결과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附加나 損失의 時期이고, 다른 하나는 附加나 損失의 地域性이다. 대체로 일찍부터 人口가 密集한 傳統文化의 中心地일수록 附加는 1930年 이전에 나타나는 반면, 損失은 그 이후에 나타나며, 湖南·湖西——關北地方을 軸으로 損失과 附加가 좋은 對稱을 形成하고 있다. 즉, 韓半島의 西南部가 工業의 相對的 損失에 치우친 반면, 東北部는 相對的 附加에 치우쳐 있다. 이것을 보다 具體的으로 알기 위해서 몇 가지 類型을 設定하여 논하여 보자.

표 1. Comparative gain or loss unadjusted for industrial structure

(年期別·地域別 工産額의 相對的 附加과 損失率)

단위: %

地 域 別	1915~20	1920~25	1925~30	1930~35	1935~40	類型分類
경 기	+5	-10	-4.7	-15	-6.9	$E_p L_m$
충 북	-46	+11	-28.5	-16	-34.2	$X L_m$
충 남	+1	-18	+0.2	-26	-40.3	$X L_m$
전 북	-21	-18	+7.0	-12	-21.0	$X L_m$
전 남	-3	+16	-7.0	-27	-18.2	$X L_m$
경 북	+15	+19	-12.0	-24	-38.1	$E_p L_m$
경 남	-18	+5	+14.0	+10	-33.5	$M_p L_m$
황 해	-35	+22	-32.0	+32	+10.0	$X L_p$
평 남	+21	+30	+17.0	-36	-6.1	$E_p L_m$
평 북	+18	-18	-13.0	-21	-4.1	$E_p L_m$
강 원	+42	-49	-19.0	+21	+25.1	$X L_p$
함 남	-25	-3	+27.0	+64	+30.2	$E_m L_p$
함 북	-3	+2	+38.0	+36	+41.7	$E_m L_p$
$\sum_{s=1}^{13} \frac{ Y_s - H_s }{2Y}$	9.6	9.8	7.6	16.7	13.1	

註: ① 各地域別數字는 $\frac{Y_s - H_s}{Y_s \text{ or } H_s}$ 에서 計出된것.

② $\sum_{s=1}^{13} \frac{|Y_s - H_s|}{2Y}$ 는 韓半島 全體工業의 純變動率

③ E=초기, M=중반기, L=후반기, P=附加, m=損失, X=불규칙적 변동

10) 여기에서 실지 생산액(Y_s)과 가상생산액(H_s)의 차액이 正數냐, 負數냐에 따라 前者의 경우에 Y_s , 後者の 경우에 H_s 를 分母로 하였다. Fuchs, V.R., 1963, 前掲書 p.40의 統計檢證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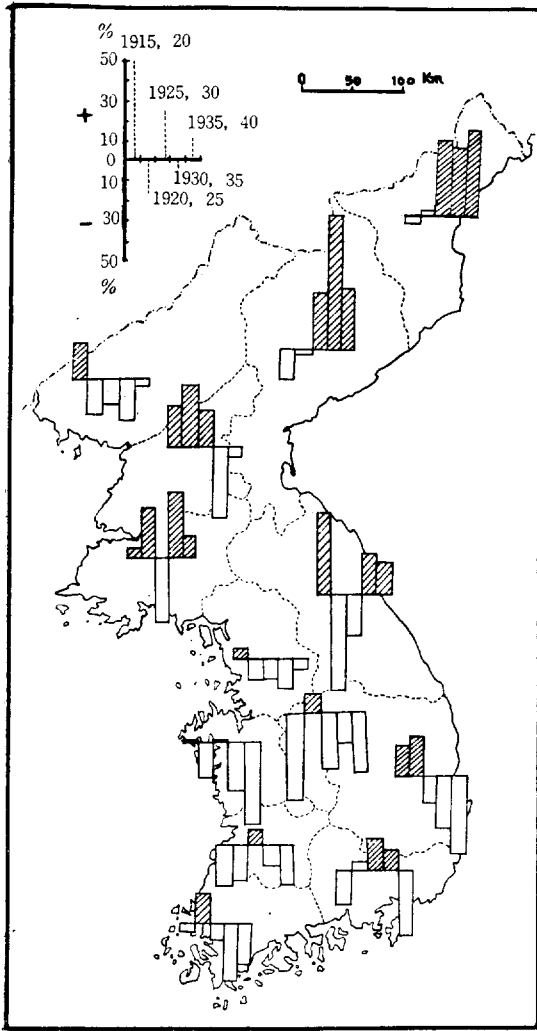


그림 1. 工業成長의 相對的 附加과 損失率 (표 1 참조)

첫째, 初期附加 및 後期損失型($E_p L_m$): 서울을 포함하는 경기도와 평양·대구를 포함하는 평남·경북, 그리고 평북·경남이 이 類型에 속하는데 적어도 1930년 이전 아니면 植民地經濟 第1段期에 높은 成長을 경험하고 末期에는 相對的으로 鈍化되는 타입이다. 이 중에서 경기도는 附加나 損失이나 간에 그 振幅이 微微하여 植民地經濟 전반의 變動에 대한 感應이 둔한 樣相을 보이는데, 이는 서울을 主軸으로 하는 경기도 自體의 工業構造의 多樣性에 起因한 것이다. 釜山 馬山을 主軸으로 하는 경남은 비슷한 類型에 속

하지만, 植民地 初期와 末期에 심한 損失이 있었고, 오히려 1920~1935년 간은, 약간의 附加로 나타나는 일종의 變型이라 판단된다.

둘째, 後期損失 不定型(XL_m): 충남북과 전남북이 이에 속하는데, 한결같이 植民統治의 後半에는 極甚한 損失이 있었고, 前半까지는 不規則한 樣相으로 나타나 있다. 때로는 相對的 附加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植民統治期間을 통하여 대체로 損失이 크다. 결국 이들 地域은 이미 植民統治時代부터 工業의 後進地域을 면치 못했던 것이며, 오늘의 形편은 이같은 先行時代性과 전혀 無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셋째 後期附加 不定型(XP_m): 강원도와 황해도가 이에 속한다. 이들 地域은 植民統治 前半까지 때로는 附加, 때로는 損失로 나타나지만, 後半期에 와서 높은 成長을 보여 주고 있다. 植民統治의 後半期에 이들 地域의 資源利用을 積極化한 政策의 反映으로 생각된다.

넷째, 初期損失 및 後期附加型($E_m L_m$): 함남·북도가 이에 속하며, 경기·경북·영남 등과 正反對 패턴을 이루는 곳이다. 즉, 植民統治 前半期까지는 工業의 後進地域으로 放置되어 있었으나, 後半期에 와서 開發이 急進展된 곳이다. 이것은 황해·강원도와 더불어 日本이 大陸進출을 위해 戰略的으로 큰 관심을 쏟은 때문이다.

결국, 이상 네 가지 타입은 각 地域의 工業開發 時期와 그 特徵을 示唆하는 것으로 思料되는데, 경기·경북·영남 등은 일찌기 近代工業이 定着·發展하였으나 韓半島의 工業構造가 資源指向的인 重化學工業으로 移行된 1930년대 이후에는 相對的으로 成長의 鈍化를 면치 못했던 곳이며, 함남·북도는 이와 正反對되는 歷程을 겪은 곳이다. 강원도와 황해도는 함남·북도의 그것과 흡사하나, 함남·북도에 비해선 近代工業의 定着時期가 多少 앞선 것으로 판단되며, 충남·북과 전남·북은 消費財 産業을 先發로 하여 早期出發하였으나 全 統治期間을 통하여 工業開發의 圈外에 있었던 곳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사실은 韓半島의 工業이 日帝 36년간에 地域的으로 어떻게 波及되어 갔으며, 어떠한 植民政策이 어떠한 地域條件을 요구했는지를 暗示하여 줄 것이다.

(3) 人口配分과 工業配分의 地域間 變動

각 地域의 相對的 附加와 損失額은 前者가 正數, 後者가 負數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몇몇 地域의 相對的 附加額 總計가 1915 年에서 1920 年까지 약 2,200 만원이라면 나머지 몇몇 地域은 同額만큼의 損失로 나타난다. 즉, 相對的 附加·損失額($Y_s - H_s$)을 正數단의 總計로 보거나 負數단의 總計로 볼 때, 이것이 韓半島 工業全體의 純變動量이 될 것이다.

1915~20 年간의 純變動量은 약 2,200 만원, 1920~25 年간의 그것은 2,900 만원, 1925~30 年간에는 2,480 만원, 1930~35 年간에는 9,280 만원, 1935~40 年간에는 24,346 만원으로, 算出되는데, 역시 1930 年 이후에 큰 變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韓半島 工業의 構造變動 時期는 동시에 工業의 地域의 立地變動이 極甚한 時期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年年別 貨幣價値의 變化가 있기 때문에 上記의 金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比較年度(terminal year)의 全國 工産額으로 나누어 工業立地의 純變動率(%)로 따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2의 最下行의 數字는 이렇게 하여 算出된 5 個 年期別 工業立地의 純變動率이다. 역시 그 결과는, 1930 年을 分界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큰 斷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930 年 이전에는 7.6%~9.8%의 純變動率을 보이는데 대해서, 1930 年 이후에는 13.1%~16.7%의 變動을 나타내고 있음이 立證한다. 다만, 1935~40 年간의 純變動額이 그 前年期(1930~35年)에 비하여 두갑절 이상이나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純變動率로는 13.1%(前半期 16.7%)로 相對的인 低率을 보이는 것은 1930 年 이후의 戰爭 인플레이와 密接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1910 年을 100 으로 본 都賣物價 指數는 1930 年에 180, 1935 年에 160 인데 대해서, 1940 年에는 313 으로 나와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植民地 統治期間에 있어서 工業立地의 變動은 이미 産業構造나 工業構造를 分析한 前篇의 論文¹¹⁾에서와 같이, 1930 年 이전과 이후가 크게 구별되어야 옳다. 1910~1930 年간에 全體의 産業構造나 工業構造에 큰 變化가 없는 政策의 結果가 적어도 巨視的 觀點에서는 工業의 立

표 2 年次別, 地域別 工産額百分比

單位: %

도	별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경	기	25.8	27.5	24.6	23.4	21.1	18.9
충	북	4.0	2.1	2.4	1.7	1.4	0.9
충	남	4.6	4.7	3.8	3.8	2.8	1.7
전	북	5.8	4.5	3.7	4.1	3.5	2.8
전	남	7.8	7.5	9.0	8.3	5.9	4.9
경	북	8.6	10.2	12.8	11.2	8.4	5.2
경	남	11.5	9.4	9.9	11.7	12.8	8.6
황	해	7.3	4.8	6.2	4.2	6.0	6.8
평	남	6.6	8.4	12.1	14.6	9.2	8.7
평	북	5.3	6.5	5.3	4.5	3.5	3.4
강	원	4.6	8.0	4.0	3.2	4.0	5.4
합	남	5.8	4.3	4.2	5.8	16.0	23.2
합	북	2.2	2.1	2.1	3.5	5.4	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um_{s=1}^{19} \frac{ Y_s - H_s }{2Y}$		9.6	9.8	7.6	16.7	13.1	
$\sum_{s=1}^{18} \frac{ Y_s/Y - X_s/X }{2}$		9.8	10.0	7.8	15.8	13.5	

11) 邢基柱, 1975, 前掲書, pp. 48~50

地에도 큰 變化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1930년 이후의 積極的 工業化 政策은 工業 地域構造의 激變 내지 再編成을 통해서 實現할 수 있었던 것이다.

工業立地의 純變動率은 어디까지나 실지 生産額(Y_s)과 假想額(H_s)과의 差額을 기초로 해서 算出된 것이다. 그런데, 同 結果는 實地生産額의 地域別 百分比가 年別로 변하는 狀態에서도 쉽게 檢證되는데 표 2에서와 같이 前年度(基準年度)와 後年度(比較年度)의 각 地域別 生産額 百分比의 偏差를 합친 數字는 앞서 算出한 V.R. Fuchs의 純變動率과 거의 같은 結果인 것이다.¹²⁾

이와 같은 工業의 地域的 配分 및 그 變化는 과연 人口의 地域的 配分과 密接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불행히 우리는 工業統計에 相應한 人口統計 資料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1925년 이후에 있어서는 5年間隔의 國勢調查의 結果를 活用할 수 있다. 표 3은 國勢調查에 의한 道別 人口를 百分比로 표시한 것이다. 앞서 표 2의 工業配分과 比較할 때 人口의 地域的 配分은 年次에 따라 큰 變化가 없음을 볼 수 있다. 日本의 善生永助가 李朝末의 道別 人口를 推定한 地域的 配分과 크게 다를 바 없다.¹³⁾ 이에 대해서 G.T. Trewartha와 W. Zelinsky는 '오늘의 地方別 人口의 構成에 관한 敘述은 數世紀 이전의 韓國에도 똑같이 適合될 것으로 생각된다'¹⁴⁾고 하였는데, 사실 韓半島는 植民地 統治期間에 하등의 社會的 變革을 겪지 않았으며, 變革이 있었다 하더라도 1930년 이후 극히 미미하게 進行되는 停滯性을 오랜 세월에 걸쳐 벗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3에서와 같이, 1925~30년 간의 地域別 人口配分의 偏差

표 3 地域別, 年別 人口 百分比

單位: %

도	별	1925	1930	1935	1940
경	기	10.3	9.8	10.7	11.8
충	북	4.3	4.3	4.2	3.9
충	남	6.6	6.7	6.7	6.5
전	북	7.0	7.2	7.0	6.6
전	남	11.1	11.2	11.0	10.8
경	북	11.9	11.6	11.2	10.2
경	남	10.4	10.0	9.8	9.2
황	해	7.5	7.4	7.3	7.5
평	남	6.4	6.3	6.4	6.7
평	북	7.3	7.4	7.5	7.3
강	원	6.8	7.2	7.0	7.3
함	남	7.2	7.5	7.5	7.7
함	북	3.2	3.4	3.7	4.5
계		100.0	100.0	100.0	100.0
偏差		+1.4		+2.9	
人口와 工業의 r		0.6597	0.5427	0.5239	0.3708

資料: 各年別 國勢調查統計에 의한.

註: r는 人口配分과 工業配分의 피어슨 相關係數

는 불과 1.4%, 1930~35년간에도 1.4%에 불과했고, 1935~40년간에는 2.9%로서 약간의 變動을 보일 뿐이다. 이 期間에 工業은 각각 7.6%, 16.7%, 13.1%의 變動이 있었던 것과 잘 對照가 될 것이다. 결국, 工業立地의 變動이 人口變動에 循環·累積 作用을 하는 一般的 傾向과는 달리, 韓半島의 植民地의 工業에 관한 한 人口變動에는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植民地 工業의 특징이며, 동시에 解放 후 韓半島 工業을 長期間에 걸쳐 畸形으로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표 2와 표 3을 土臺로 하여 工業配分과 人口配分간의 피어슨 相關係數를 算出한 결과 1925년

$$12) \sum_{s=1}^{13} \frac{|Y_s - H_s|}{2Y} = \sum_{s=1}^{13} \frac{|Y_s/Y - X_s/X|}{2} \text{를 檢證하면, } H_s = X_s \frac{Y}{X} \text{니까, } \sum_{s=1}^{13} \frac{|Y_s - \frac{X_s Y}{X}|}{2Y} = \sum_{s=1}^{13} \frac{|Y(\frac{Y_s}{Y} - \frac{X_s}{X})|}{2Y}$$

이다. 이것은 $\sum_{s=1}^{13} \frac{|Y| |\frac{Y_s}{Y} - \frac{X_s}{X}|}{2Y}$ 와 같으며, 만약 $|Y|=Y$ 라면 앞의 식은 $\sum_{s=1}^{13} \frac{|Y_s - \frac{X_s}{X}|}{2}$ 이므로, 결국

$$\sum_{s=1}^{13} \frac{|Y_s - H_s|}{2Y} = \sum_{s=1}^{13} \frac{|Y_s - \frac{X_s}{X}|}{2} \text{이다.}$$

13) 善生永助, 1927, 朝鮮의 人口現象(朝鮮總督府調查資料, 第22輯), 또는 朝鮮學報, 第21·21合併號, pp. 181~182

14) Trewartha, G.T. & Zelinsky, W., 1955, "Population distribution and change in Korea 1925~49," Geogr. Review, vol. 45, p. 7

의 그것은 $r=0.6597$,¹⁵⁾ 1930년의 그것은 $r=0.5427$,¹⁶⁾ 1935년에는 $r=0.5239$,¹⁷⁾ 1940년에는 $r=0.3708$ ¹⁸⁾을 나타내었다. 係數가 나타내는 그대로를 풀이하면 1935년까지는 工業配分과 人口配分間에 어느 程度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으나 대체로 植民統治의 後半期에 이룰수록 점차 相關關係가 弱화되고 있으며, 1940년에 와서는 거의 相關關係의 有無가 의심스러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植民統治 後半期에 있어서 工業의 急速한 地域的 變動에도 불구하고 그에 相應한 人口變動이 없었음을 示唆하는 것인 즉 가령 함경남도의 工業 세어는 1915년의 5.8%에서 1940년의 23.2%로 변한데 반해서 人口 세어는 同期間에 거의 변화가 없는 7%線에 머물러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결국, 人口配分에는 큰 變化가 없는 반면에 工業配分에 있어서는 一定地域에의 偏倚가 극심한 樣相을 잘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V.R. Fuchs가 美國의 여러 地域을 分析한 결과를 보면, 1929~1954년 간에 있어서 人口變動과 工業立地의 變動은 密接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⁹⁾

(4) 立地變動과 工業構造

한 地域이 他地域에 비해서 工業의 相對的 附加를 나타내는 경우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만 이 可能하다. 즉, 一定地域의 여러 가지 業種이 다른 地域의 그것보다 평균해서 높은 成長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全國水準보다도 平均해서 높은 成長을 나타내는 業種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표 1에 나타난 여러 地域의 相對的 附加와 損失이 과연 이 중에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일까? 이것은 새로운 計量結果를 통해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Comparative gain or loss adjusted for industrial structure
(工業構造로 調整한 相對的 附加·損失率)

		단위 : %				
도	별	1915~20	1920~25	1925~30	1930~35	1935~40
경	기	+5.00	-9.86	-4.90	-13.83	+0.97
충	북	-44.77	+10.58	-29.00	-9.00	-14.80
충	남	+1.29	-18.14	+1.94	-19.33	-24.73
전	북	-18.37	-16.92	+8.97	-6.13	-8.89
전	남	-1.75	+16.80	-6.23	-22.24	+0.700
경	북	+16.61	+23.86	-8.56	-17.43	-24.03
경	남	-17.26	+2.74	+12.94	+16.50	-22.27
황	해	-32.73	+15.17	-33.71	+25.21	-0.63
평	남	+18.14	+32.61	+15.88	-30.68	+6.05
평	북	+9.68	-19.61	-12.35	-23.29	-2.70
강	원	+45.53	-50.95	-19.54	+15.95	+13.65
함	남	-26.91	-5.14	+27.13	+57.28	+9.99
함	북	-8.93	-3.43	+36.60	+16.98	+25.47
$\sum_{s=1}^{19} \frac{ Y_s - H_s }{2Y}$		9.6	9.8	7.6	16.7	13.1

註 : ① 工業構造로 調整한 相對的 附加와 損失의 算式은 $\frac{1}{2} \left[\frac{Y_s - H'_s}{Y_s \text{ or } H'_s} + \frac{B'_s - X_s}{B'_s \text{ or } X_s} \right]$

② 고딕數字는 표 1의 符號가 뒤바뀐 곳 즉, 附加와 損失이 바뀐 곳.

15) r 에 대한 t 의 分布는 $t = r\sqrt{(N-2)/(1-r^2)} = 2.9113$ 이것은 5% 危險率에서 0.553보다 크기 때문에 有意性이 認定된다.

16) $t = 2.1429$

17) $t = 2.0398$

18) $t = 0.7007$

19) Fuchs, V.R., 1963, op. cit., pp. 66~76.

표 4는 s 지역의 業種別 假想生産額 總計 ($H's = \sum_i H's_i$)와 s 지역의 實地生産額 總計 (Y_s)와의 差額을 後者(Y_s)에 대한 百分比로 나타낸 것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 算出된 결과는 s 지역의 工業構造가 全國의 그것과 같을 경우에 s 지역의 實地生産額과 얼마나 차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표 1의 그것과 對比하여 볼 때, 이들이 매우 근사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年期(1935~40년)를 제외하면 1915년에서 1935년까지 각 지역의 附加와 損失이 뒤바뀐 경우는 거의 없다. 표 1과 4에서 보여 주듯이, 1935~40년間に 있어서 경기도가 -6.9%에서 +0.97%로 변했고, 전남이 -13.2%에서 +0.7%, 평남이 -6.1%에서 +6.05%로 변함으로써 이들 3개 지역은 公業구조를 考慮하는 한 1935~40년간의 工業成長은 相對的 損失에서 相對的 附加로 바뀐 셈이다. 그리고, 오직 황해도만이 10%의 附加에서 0.63%의 損失로 나와 있다. 결국, 이상의 4개 지역이 1935~40년間に 相對的 附加와 損失의 뒤바뀐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工業成長의 地域差는 業種構成을 고려한 成長의 地域差와 密接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표 1과 표 4에 나타난 地域順位를 각 年期別로 피어슨 相關係數를 算出한 결과, 最低 +0.71에서 最高 +0.84의 높은 係數를 確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느 時期에 어떤 部門의 立地變動이 激甚하였을까. 이것을 地域적으로 把握할 경우에는 이와 연관된 立地條件을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는 年期別, 業種別 工業立地の 純變動率을 나타낸 것으로서, 가령 1915~20년間に 金屬工業이 25.0%로 표시된 것은 1920년의 全國 金屬工業 生産額에 대한 25.0%가 立地變動을 겪었다는 뜻이며, 地域적으로는 그만큼 附加된 곳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損失된 곳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대체로 植民統治 後半期에 이룰수록 立地變動의 폭이 크고 전반적으로 重化學 部門일수록 激甚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편의상 각 年期別로 立地變動

표 5 業種別, 年期別 純立地變動率

		단위: %				
		1915 ~20	1920 ~25	1925 ~30	1930 ~35	1935 ~40
방	직	20.5	10.5	13.8	24.5	13.5
금	속	25.0	7.0	8.1	51.5	39.8
기	계	9.5	25.0	19.0	13.5	19.2
요	업	24.0	19.0	14.5	14.0	36.5
화	학	24.0	19.5	21.0	45.5	9.2
목	재	20.0	20.0	12.5	8.0	24.9
식	품	10.5	13.0	7.0	11.5	5.9
기	타	9.0	14.0	8.5	11.5	12.0
$\sum_{s=1}^{18} \frac{ Y_s - H's }{2Y}$		9.6	9.8	7.6	16.7	13.1

註: 算式은 $\sum_{s=1}^{18} \frac{|Y_s - H's|}{2Y}$

이 激甚했던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1915~20년: 방직, 금속, 요업, 화학, 목재,

1920~25년: 기계, 요업, 화학, 목재,

1925~30년: 기계, 화학,

1930~35년: 방직, 금속, 화학,

1935~40년: 금속, 기계, 요업, 목재,

결국, 一定地域의 工業이 위와 같은 部分을 주로 해서 組成되어 있다면, 그 地域은 해당 年期에 있어서 立地變動을 크게 겪은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純立地變動이란 어디까지나 附加(+)이건 損失(-)이건 그 폭이 큰 것을 뜻하므로, 一定地域에 있어서 工業의 高度成長을 主導한 部門을 判斷하려면 附加의 폭이 큰 業種만을 地域別로 抽出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5개 年期, 8개 業種을 13개 道別로 計算處理하면 520개 項目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成長(附加)의 폭이 큰 業種만을 地域別로 표시한 것이 표 6이고, 이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全期間을 통하여 立地變動이 미미하고, 成長을 主導한 特定部門이 없는 경기·평북·충남·충북·전북을 同一 部類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경기·평북은 植民統治 初期에 한해서 業種全體의 높은 成長을 경험한 곳이다.

② 特定部門의 顯저한 成長으로 立地變動이 極甚했던 곳은 初期 成長型으로 전남·경북·평남이 있고, 中期 成長型으로 경기·황해가 있으며,

20) 表 5에서 20% 내외 이상의 業種만을 抽出한 것이다.

표 6 年別, 地域別, 高成長 主導業種

도	별	1915~20	1920~25	1925~30	1930~35	1935~40
경	기	●	○	○	○	●
충	북	○	●	○	○	○
충	남	●	○	●	○	○
전	북	○	○	●	○	○
전	남	○	T, P, C, W	○	○	●
경	북	T, W, O	T, E, W, O	○	○	○
경	남	○	●	●	T, F	○
황	해	○	E, C, W	○	M, E	○
평	남	P, C, O	F,	E, C, F	○	●
평	북	●	○	○	○	○
강	원	C, F, O	○	○	E, C	P, F
함	남	○	○	P, C, W	C, P	●
함	북	○	○	C, W	E, W	M, P, W
立地變動이 심한 業種		T, M, P, C, W	E, P, C, W	E, C	T, M, C	M, E, P, W

- 註: ① T=방직, M=금속, E=기계, P=요업, C=화학, W=목제품, F=식품, O=기타
 ② ○표는 相對的 損失, ●표는 相對的 附加(弱)
 ③ 業種標識가 된 곳은 相對的 附加가 강한 곳
 ④ 最下段의 業種標識는 表 5에 의한 것이며, 各道別 業種標識는 $\frac{Y_{si} - H_{si}}{Y_{si} \text{ or } H_{si}}$ 에서 判斷된 것

後期成長型으로 강원·함남·함북이 있다. 初期成長型의 成長主導 部門은 전남·경북이 방직과 목제품공업으로 共通性이 있고, 평남은 食品·化學工業이 추가 되어 있다. 中期成長型을 보면 경남의 방직·식품공업, 황해의 金屬·機械工業이 高度成長의 主軸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後期成長型에서는 한결같이 化學·窯業 및 木材業이 高成長을 主導하고 있다. 결국, 표 6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植民統治의 前半에는 韓半島 中部 以南이나 傳統文化의 中心地에서 紡織·木材業을 비롯한 잡다한 工業의 成長이 地域工業을 이끌어 가고 있었던 반면, 後半에는 韓半島 中東部 내지 北東部에서 化學·窯業을 비롯한 重化學 部門이 地域工業을 이끌어 가는 特性을 지니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指摘된 地域들이 과연 그 時期에 있어서 理想的이고 바람직한 工業構造를 보인 곳이나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 하면, 地域工業의 成長을 主導한 高度成長 部門이 있었던 반면에 이같은 地域은 현저하게 損失을 본 部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理想的 工業構造란 一定期間에 여러 部門의 工業이 다른 地域 이상의 structural balance를 나타낼 경우,

또는 한地域의 工業이 全國적으로 보아 높은 成長을 보이고 있는 業種을 주로 해서 組成된 경우이며, 표 4와 표 7이 모두가 附加로 나타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地域은 그 時期에 있어서 가장 favorable structure를 가졌다 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표 1과 표 4의 결과는 서로가 높은 相關關係가 있었고, 표 1과 같은 工業成長의 地域의 偏差는 표 4와 같은 structural balance의 地域의 偏差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가 표 7의 '相對的 工業構造'에도 높은 成長으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 favorable structure라고 판단할 수 없으니, 앞에서 밝힌 대로 가능한 한 여러 部門의 工業이 모두가 損失이 없이 높은 附加率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地域이 다른 地域에 비해서 全國的 成長을 主導한 業種으로 刮目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이 完璧한 構造란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 7의 數字 중에 고딕體로 표시된 것은 표 4와 표 7의 算出結果가 해당 年別에 있어서 모두 附加(+)로 나타난 경우이며, favorable structure로 判斷된 곳이다. 대체로 한 年別에 favorable structure로 判斷된 地域은 全國 13道 중에 3~4個 地域에 불

표 7 Comparative Industrial Structure
(相對的 工業構造)

단위 : %

도	별	1950~20	1920~25	1925~30	1930~35	1935~40	비	고
경	기	+0.98	-0.74	+0.17	-1.41	-7.85	E_f	
충	북	-2.75	+0.60	+0.62	-8.60	-22.83	E_f	
충	남	+0.14	-0.66	-1.74	-9.36	-20.68	E_f	
전	북	-3.74	-1.88	-1.07	-6.24	-13.38	U_{nf}	
전	남	-2.19	-0.58	-1.20	-7.28	-18.80	U_{nf}	
경	북	-1.22	-5.07	-4.06	-8.15	-18.54	U_{nf}	
경	남	-1.29	+2.39	+1.51	-7.16	-14.44	M_f	
황	해	-3.49	+8.83	+1.75	+9.28	+10.61	M_f	
평	남	+3.77	-3.33	+1.93	-8.15	-11.85	E_f	
평	북	+9.28	+1.62	-1.68	+1.97	-1.43	E_f	
강	원	-5.89	+2.47	+0.51	+5.44	+13.36	L_f	
합	남	+2.00	+4.00	+1.15	+15.90	+22.52	L_f	
합	북	+5.70	+5.70	+3.41	+23.58	+21.89	L_f	

註 : ① 相對的 工業構造의 算式은 $\frac{1}{2} \left[\frac{H'_s - H_s}{H'_s \text{ or } H_s} + \frac{B'_s - B_s}{B_s \text{ or } B'_s} \right]$

② 단약에 각 지역의 각 업종이 그 업종의 全國成長만큼 成長했을 경우에 相對的 附加과 損失率

③ 고적數字는 표 4 와 일치되는 相對的 附加로서 favorable structure,

④ E=초기, M=중반기, L=후반기, f=favorable structure U_{nf} =Unfavorable structure,

과하고 一定地域이 계속 適正構造를 維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韓半島 工業의 構造變動時期에 속하는 1930년 이후에 있어서는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가 계속 適正構造를 維持하고 있을 뿐이다. 類型分類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繼續不適構造(U_{nf}): 전북·전남이 포함되는 湖南地方과 경북이 이에 속하는데 이미 叙述된 바와 같이, 湖南地方은 植民統治 全期間을 통해서 工業의 落後地域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工業構造로 보아도 다른 地域에 비하여 항상 不適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경북은 植民統治初期에 높은 成長을 경험한 일이 있으나, 이것이 紡織·木材業 위주의 극히 不均衡한 構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初期適格構造(E_f): 경기·충남·충북이 포함되는 中部地方과 평남·평북의 關西地方이 이 部類에 속한다. 前者는 初期에 工業全般의 高度成長을 경험한 이외에 全期間을 통해서 構造上 큰 變化가 없고, 後者는 몇몇 特定部門의 高度成長이 全體工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쨌든 植民初期에 適格構造로 判斷된 中部와 關西地方은 서울과 평양을 代表로 하는 傳統文化 地域이고 日本의 近代工業이 移植되기 이전부터

이미 相當程度의 家內手工業이 存立하고 있었다. 그리고, 合併을 前後해서 移植이 始作된 近代的 工場工業은 주로 小規模의 資本으로 韓國의 低勞賃을 背景으로 하는 生必需品 生産이 大宗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人口가 密集된 傳統的 文化地域은 이같은 工業이 自生하기에 알맞는 곳이라 생각된다. 또한 仁川과 서울은 일찍부터 日本人 居留者가 많았고, 同 居留者가 많은 곳일수록 저들의 자유롭고 便利한 活動이 保障될 것이므로 初期의 工業에는 이러한 곳이 工業의 適格空間이었음에 틀림 없다.

셋째, 中期適格構造(M_f): 대체로 1920년에서 1935년 사이에 favorable structure를 보인 곳인데, 경남과 황해도가 이에 속한다. 경남의 경우에는 이 時期에 와서 紡織·機械·窯業·木材業 등 多數 部門이 확대되었고, 황해도의 경우에는 1920~25年間의 金屬·機械·化學·木材業, 1930~35年間에는 金屬工業을 비롯한 거의 全部門이 높은 成長을 이룩하였다.

넷째, 後期適格構造(L_f): 강원도와 함남·북도가 이 部類에 속하며 대체로 1925년 내지 1930년 이후에 favorable structure로 나타난다. 특히, 함남·북의 그것은 1930년 이후에 극단으로 有利하게 전개되며, 韓半島 工業構造의 轉

換은 곧 이 地方의 重化學 部門에 主導된다. 두 달할것 없이 이들 地域은 同 期間에 日本이 計劃했던 軍需工業基地로서 役割을 다한 곳이며, 또 이에 相應한 立地條件을 갖춘 곳이었다.

V.R. Fuchs가 美國을 州別로 分析한 결과에서는 New England 諸州와 南東沿岸 諸州 및 Oregon, Dakotas 州를 포함하는 山地 여러 州가 不利한 構造를 보이고, New York 中心의 東岸과 太平洋沿岸 및 中西部 諸州가 favorable structure로 判別되고 있다.²¹⁾

결국, 韓半島工業의 「相對的 工業構造」를 年 期別로 類型分類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韓半島의 植民地의 工業은 처음에 中部·關西地方에서부터 나중에 韓半島의 北東部 方向으로 有利하게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同時에 各 年 期에 활발히 전개된 業種에 合當한 立地條件과 植民地政策과의 密接한 관계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한편, 전남·북이 포함되는 韓半島 西南部는 始終 不利한 地位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항시 다른 地域에 비해서 相對的 工業後進 地域이었다. 이것도 역시 이에 相應한 立地條件과 植民地政策과의 關係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章을 달리해서는 하기로 하자.

(5) 工業地域構造의 動態의 軸

우리는 지금까지 工業의 立地變動에 관한 세 가지 次元을 분석하여 왔다. 첫째는 年 期別·地 域別 全體 工業의 相對的 成長이고²²⁾ 둘째는 이 같은 成長이 structural balance에 영향을 받은 狀態이며²³⁾ 셋째는 年 期別·地 域別 相對的 工業 構造²⁴⁾이었다. 이에 관한 결과는 이미 표 1·4·7에 나타나 있고, 分析의 편의를 위해서 각각 몇 가지의 類型分類가 試圖되어 있다. 筆者는 이제 가지에 나타난 類型上의 特徵을 한층 判別하기 쉬운 概念으로 종합하였다. 191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韓半島의 工業이 그 構造의 特長으로 보아 1930년을 分水嶺으로 하는 그 前半과 그

後半으로 나눌 수 있다고 筆者는 여러 차례 示唆하여 왔다. 그러나, 이미 前篇의 論文²⁵⁾에서 밝힌대로 分析의 편의상 第1段期(初期), 第2段期(中期), 第3段期(後期)로 나눌 수 있으며 立地變動의 性格을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綜合的 概念을 파악함에 있어서 1次의 重要性은 全體工業의 成長이고, 이것이 어느 時期에 實現되었느냐에 있다. 표 1의 最右端에 표시된 記號는 곧 이것을 判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重要한 것은 工業構造의 適否를 判別한 것이며, 이것 역시 어느 時期에 favorable structure를 겪었느냐에 따라서 표 7의 最右端에 記號가 표시되어 있다. 이상 두 가지 사실을 가린 다음에, 과연 그 地域이 어느 時期에 어떤 部門의 顯著한 成長에 영향을 받았느냐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표 6에 그 記號가 業種別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혀 支配的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세 가지를 종합한 것이 표 8이고, 여기 쓰인 記號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內包한다.

時期를 나타내는 記號: E(초기), M(중기), L(후기), X(불규칙적 변동시기)

工業成長을 나타내는 記號: p(附加), m(損失)
工業構造의 適否를 나타내는 記號: f(有利), Un_f(不利)

工業部門을 나타내는 記號: T(방직), M(금속), E(기계), P(요업), C(화학), W(목제품) F(식품), O(기타)

立地變動의 綜合的 概念을 明瞭하게 알아 보기 위해서 위의 각 記號를 分數表記方式으로 整理하였다. 즉, 分母에는 時期別 相對的 工業構造의 適否, 分子에는 工業成長에 영향을 미친 工業部門의 記號를 각각 記入하고, 分數記號의 左端에는 工業成長의 時期를 역시 記號로 표시한다. 가령, $L_p \frac{M.C}{L_f}$ 라면, 이 地域은 ① 後期成長(L_p)에, ② 後期適格構造(L_f)이며, ③ 成長에 영향을 미친 部門(M.C)은 金屬과 化學工業이란

21) Fuchs, V.R., 1963, op. cit., pp. 62~63

22) Comparative gain or loss unadjusted industrial structure

23) Comparative gain or loss adjusted industrial structure.

24) Comparative industrial structure.

25) 邢基桂, 1975, 前掲書, p. 34

표 8 工業立地變動의 綜合的 類型

지역별	1910-1945年間		성 장 추 진 종	입지변동 유형
	공업성장 시기	상대적 공업구조		
경 기	$E_p L_m$	E_f	Z	$E_p \frac{Z}{E_f}$
충 북	$X L_m$	E_f	Z	$X \frac{Z}{E_f}$
충 남	$X L_m$	E_f	Z	$X \frac{Z}{E_f}$
전 북	$X L_m$	U_{nf}	Z	$X \frac{Z}{U_{nf}}$
전 남	$X L_m$	U_{nf}	Z	$X \frac{Z}{U_{nf}}$
경 북	$E_p L_m$	U_{nf}	TWEO	$E_p \frac{TWEO}{U_{nf}}$
경 남	$M_p L_m$	M_f	TF	$M_p \frac{TF}{M_f}$
황 해	$X L_p$	M_f	EMCW	$L_p \frac{EMCW}{M_f}$
평 남	$E_p L_m$	E_f	PCOFE	$E_p \frac{PCOFE}{E_f}$
평 북	$E_p L_m$	E_f	Z	$E_p \frac{Z}{E_f}$
강 원	$X L_p$	L_f	ECPOF	$L_p \frac{ECPOF}{L_f}$
함 남	$E_m L_p$	L_f	PCW	$L_p \frac{PCW}{L_f}$
함 북	$E_m L_p$	L_f	MEWCP	$L_p \frac{MEWCP}{L_f}$

註: ① 표-1, 6, 7을 종합한 것
 ② Z는 성장추진도 업종 不明
 ③ 分母記號=E(초기), M(중기), L(후기), f(有利), U_{nf}(不利)
 分子記號=T(방직), M(금속), E(기계), C(화학), P(요업), W(목제품), E(식품), O(기타)
 左端記號=E(초기), M(중기), L(후기), X(불규칙적 변동시기) p(附加), m(損失)

뜻이 된다.

分類의 基準을 이와 같이 하여, 日帝下의 韓半島 工業 地域構造를 動態의 次元에서 體系化하면, 표 9에서와 같이 4개의 基本的 地域類型을

표 9. 工業地域構造의 動態的 軸

		1910~1945年			
		X	E_p	M_p	L_p
time and industrial structure	U_{nf}	전 북 전 남	경 북		
	E_f	충 북 충 남	경 평 기 남 북		
	M_f			경 남	황 해
	L_f				함 남 함 북 원
		time and comparative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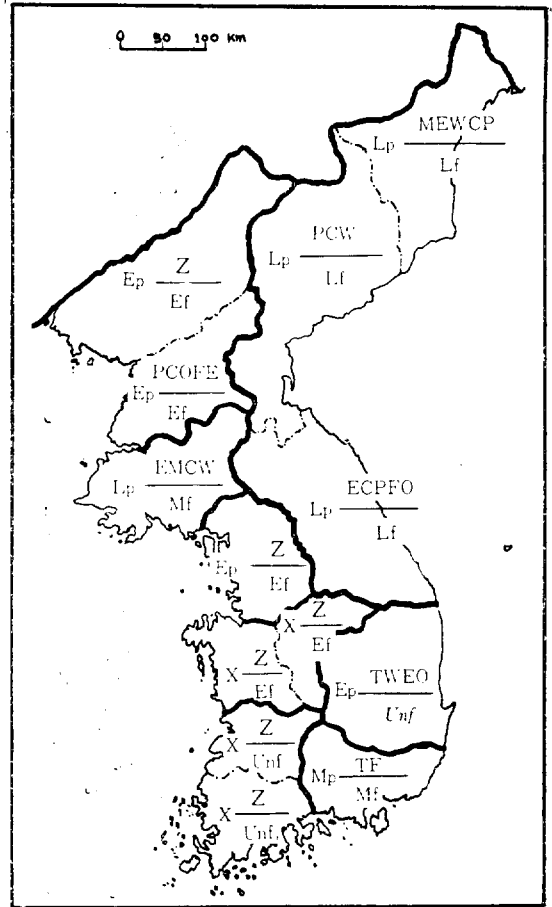


그림 2 工業立地變動의 綜合類型(1910~1945년)

主軸으로 해서 地域構造의 體系가 存立하며, 主軸을 이루는 4개의 地域類型 이외에 몇 개의 中間類型이 形成된다. 그리고, 이 같은 主軸의 基本類型을 上位構造로 해서 그 아래에 몇 段階의 下位體系가 形成할 것으로 짐작되나, 이것은 보다 微視的인 地域分析을 통해서만이 把握이 可能할 것이다. 표 9에 組立된 4개의 主軸的 地域構造는, ① 植民地 初期에 比較的 높은 成長을 겪었고 그것이 有利한 工業構造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경기·평남·평북의 $E_p E_f$ 型, ② 植民地統治의 中盤期에 높은 成長을 겪고 그것이 有利한 工業構造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경남의 $M_p M_f$ 型, ③ 後期에 높은 成長을 겪고 同時에 有利한 工業構造를 背景으로 한 함남·함북·강원의 $L_p L_f$ 型, 그리고 ④ 工業成長에 있어서 전

혀 一定 規則的 時期를 확
인할 수 없는 위에 全期間
을 통해서 계속 不利한 工
業構造 때문에 工業的 後
進地域을 면치 못하였던 전
북·전남의 XU_{nf} 型으로 나
뉘어진다. 이것은 日帝下
의 韓半島 工業을 time-
space dimension 으로 把
握할때 가장 基本的 構造
가 되는 것이며, 筆者는 이
것을 工業地域 構造의 ‘動
態的軸’이라고 칭하고 싶
다. 日帝下의 韓半島 工業
은 $E_p E_f \rightarrow M_p M_f \rightarrow L_p M_f$ 型
으로 立地變動을 겪었기 때
문이다. 물론, 이보다 좁
은 地域을 조사 분석하면
몇 개의 都市로 구성되는
小規模의 많은 sub-system 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動
態的軸’을 基本으로 해서 中
間的 내지 漸移型이 存立하는데
 $E_p L_f$ 型과 XU_{nf} 型
사이에서 충남·충북 및 경북이
있고, $L_p L_f$ 型
과 $M_p M_f$ 型
사이에서 황해도가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은 時間的·空間
的 次元을 알아보기 쉬운
概念圖로 나타낸 것이 그림 3
이다. 縱軸이 時間, 橫軸이
空間을 표현하는 長軸立方體를
韓半島로 생각하고 각 地域을
立地變動의 類型別·地理
的位置別로 配列하였다. 여
기에서 전남·전북의 XU_{nf} 型은
工業的 後進地域이란 意味
에서 立方體의 바닥에 別
途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3. 解放前 工業立地 變動의 要因

(1) 要因抽出의 問題點

解放前 韓半島의 工業立地는
分折된 年期에 따라 그 變動
樣相이 다르고 變動에 影響
을 미친 要因도 물론 다를 것
이다. 따라서, 一定年期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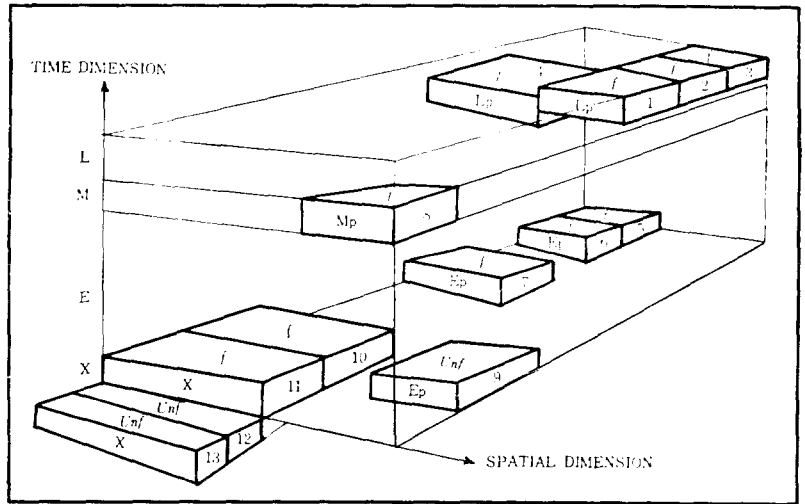


그림 3 工業地域構造의 動態의 概念 (1910~1945년)

E:early, *M*:middle, *L*:late, *X*:variable, *f*:favorable structure, U_{nf} :Unfavorable structure, 1=江原, 2=咸北, 3=咸南, 4=黃海, 5=平北, 6=平南, 7=京畿, 8=慶南, 9=慶北, 10=忠北, 11=忠南, 12=全北, 13=全南

立地變動의 要因이 抽出되어야
올다. 그런데, 191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韓半島
工業立地의 가장 두드러진
變動樣相은 이미 앞에서 논한
대로, ① 처음에 中部 및 關
西地方에서부터 나중에 韓
半島의 北東部 方向으로 有
利하게 전개된 점, ② 全
南北이 포함되는 韓半島
西南部는 始終 工業的 後
進地域을 면치 못한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筆者는 ‘工
業地域構造의 動態的軸’
이라 이름하였고, 當代의 植
民地政策과 각 지역
의 立地條件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
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一
定 年期마다 立地變動의
要因을 抽出하는 번거로움
을 겪을 필요가 없이 工
業地域構造의 動態的軸이
만들어진 要因단을 抽出
하면 된다. 결국 ① 京畿
地方과 關西地方이 植
民初期에 工業이 有利하게
전개된 理由, ② 韓半島
의 北東部 地方이 植民
後半期에 工業이 有利하게
전개된 理由, ③ 全南北
이 포함되는 韓半島의
西南部 地方이 始終 工
業的 後進地域으로 남게
된 理由가 주요 課題로 남
는다.

V.R. Fuchs 에 따르면 工
業成長의 地域的 差異와
有關되는 9個 項目의 變
數를 골라서 이들을 獨立
變數로 삼고, 工業의 相
對的 成長을 從屬變數로
삼아 이들兩者의 地域
的 差異를 多元

回歸方程式으로 處理함으로써 소위 立地要因이 說明되고 있다. 이 때 9個項目의 獨立變數는 ① 消費需要, ② 原料, ③ 稅金, ④ 對外貿易의 變動, ⑤ 聯邦政府의 政策, ⑥ 賃金水準, ⑦ 企業統合의 範圍, ⑧ 工業用地, ⑨ 氣候로 되어 있다.²⁶⁾ 그러나, V.R. Fuchs는 이 중에서 ⑥⑦ ⑧⑨를 除外하면 計量이 불가능하거나, 특히 多元回歸方程式의 적용이 무의미하여 반드시 一束의인 處理를 행하고 있지 않다.²⁷⁾ 近者에 와서는 立地要因의 抽出을 위하여 ‘因子分折法’이 開發되어 있으나 문제는 統計的 處理가 가능한 자료의 의미와 그 入手인데, 本 研究에 있어서는 이같은 手法의 援用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그것은 첫째 本 研究의 對象이 이미 오랜 과거의 事象일 뿐 아니라 整備된 자료의 入手가 거의 불가능 하고, 둘째로는 植民地經濟의 方向이란 대체로 政策變數에 따라 크게 결정되며 資本主義的 立地法則은 이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취급하는 立地要因에 관한 解明은 이미 연구된 각종 文獻과 史料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2) 早期成長 地域과 先發工業의 立地

首都 서울을 포함하는 京畿道가 대표적인 事

표 10 京畿道の 年別·業種別 工産物 生産額

		단위 : 천원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방	직	918	9,493	9,056	7,448	23,420	80,676
금	속	480	6,596	7,105	7,297	4,707	6,945
기	계	622	2,136	1,251	3,706	5,158	42,322
요	업	325	1,423	1,158	1,077	2,265	5,521
화	학	2,261	9,374	17,031	16,143	12,556	38,827
목	제 품	174	1,668	2,583	2,124	2,479	7,684
식	품	3,453	11,713	15,867	19,497	31,422	75,296
기	타	7,215	21,176	18,526	19,271	28,043	84,944
	계	15,448	63,579	75,577	76,563	110,050	342,215
對	全 國 比	25.8%	27.5%	24.6%	23.4%	21.1%	18.9%

資料 :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號

註 : ① 品目別 工産物價額을 1931年以後의 業種分類式으로 編製함

② 印刷, 電氣, 개스業 除外됨

26) Fuchs, V.R., 1963, op. cit., p. 87

27) ibid, pp. 87~93

28) 朝鮮雜誌社, 1909, 韓國要覽, pp. 80~81

例地域이 된다. 이미 앞에서 分折한 대로 京畿道는 植民初期에 相對的으로 보아 工業의 適格空間이었고 後期에 이를수록 그 重要性이 약화되는 곳인데, 이 地方의 工業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近代工業이 비교적 일찌기 定着함으로써 早期成長을 經驗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京畿地方 工産物 生産額의 對 全國 比重이 1915~1920년에 26~28%에서 1940년의 18.9%로 低下되고 있음이 間接的으로 立證하는 셈이다. 1910년 전후에서 1920년 전후에 이르기까지 이 地方에 立地한 先發工業의 實態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官設工場

零細의 形態로 存立하였던 韓國人 經營의 在來의 手工業을 제외하고도 開港 이후에는 수많은 日本人 經營의 工場과 각종 官設工場이 京仁間을 舞臺로 急増하게 된다. 특히, 이 중에 주목되는 官設工場으로는 각종 土木·建築用材를 供給하는 기와·벽돌·土管工場이다. 漢江邊의 麻浦에는 벽돌工場, 京仁沿線의 永登浦에는 기와 및 土管工場을 官設함으로써 각종 洋式 官公建築物의 新築用材를 신속히 調達토록 피한 것인데, 이것이 1907년이다.²⁸⁾ 이미 韓半島를 둘러싼 外

勢는 日本이 絶對的 優位에서 있었고, 開港地 仁川과 植民統治의 總司令部나 다른없는 首都 서울에는 日本 居留民이 날로 急增하게 되니, 이에 따라 건축수요도 急增했으리라는 것은 想像키 어렵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建築用材를 大量供給할 수 있는 模範事業體가 필요했고 麻浦나 永登浦地區는 地元原料를 용이하게 調達할 수 있는 立地로서도 適地이었다.

한편, 開化期 國政의 一環으로 각종 法的 文書의 整備·印刷가 시급하게 되어 지금의 서울驛 後便에 印刷局을 官設하게 된다. 이곳은 본래 典圖書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度支部 所管下의 印刷·製紙·鐵工 등의 業務가 遂行되고 있던 곳인데, 1908년부터는 活版·寫眞印刷를 통하여 收入印紙, 曆書, 우표, 각종 農工債券, 法規集, 證券 및 株券을 비롯하여 教科用 圖書 등이 委託印刷되었고, 增補文獻備考가 完成된 것도 이곳 印刷局을 통한 것이었다.²⁹⁾ 常時 從業員 400餘名을 雇傭하였던 印刷局은 당시 京畿地方所在의 工場 중에 가장 큰 것이었으며, 首都 서울과 같은 政策 中心地 혹은 文化·需要를 前提로 하지 않는 한 存立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본래 韓末의 官設工場으로는 武器製造를 管掌하는 機器局의 三清洞 機器廠, 鑄貨製造를 管掌하는 典圖書의 龍山工場, 漢城旬報를 發刊했던 博文局의 印刷工場, 그리고 織造局과 造紙局 所管의 각 工場이 그 母胎가 되어 政府의 殖產興業 政策을 象徴하였으나 당시의 經濟的·技術的 與件에서는 그 實績이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다.³⁰⁾

2) 日本人 經營의 工場

韓日合併 구립에 發刊된 「朝鮮產業誌」에는 당시 日人들에게 有利한 工業을 이렇게 記述하고 있다.³¹⁾ 첫째 朝鮮에 있는 材料 및 原料를 쉽게 얻을 수 있는 工業, 둘째 運搬이 不便하고 破損의 우려가 있는 商品의 製造, 셋째 小規模의 手工業으로서 大資本을 요치 않은 工業, 넷째 朝鮮人을 低賃으로 雇傭할 수 있는 單純한 工業 등

이다. 결국, 이같은 범주에 드는 工業으로 鐵具·機械修理가 주가 된 手工業 水準의 金屬業, 기와·벽돌製造業, 精米業, 印刷業, 日本釀造業, 煙草製造業, 菓子類製造業, 洋靴·洋服製造業 등이 주목되는데, 특히 精米業은 당시의 서울·仁川을 비롯해서 釜山·群山·木浦에 비교적 큰規模의 工場이 創設되었다. 京仁·京釜線의 開通으로 달미암아 서울驛 부근의 蓬萊洞 및 龍山驛 부근, 그리고 仁川의 龍岡町·濱町 一帶가 이른바 新式 精米工場의 發足地로 불리게 되고, 이것은 후에 와서도 韓國米 搬出의 據點으로 成長하게 된다. 벽돌·기와 製造는 前記 麻浦와 永登浦所在의 官設工場 이외에 延禧洞과 始興에 日本人 經營의 工場이 創設된 바 있는데, 이곳 역시 粘土와 燃料의 取得이 容易한 당시의 市街地 邊方을 立地로 選擇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당시의 立地相은 釜山의 경우에는 影島, 平壤의 경우에는 船橋里가 포함되는 大同江面 一帶, 大邱의 경우에는 지금의 新岩·新川洞 一帶가 비슷한 事例에 속한다.

한편, 洋家具·菓子·印刷業 등은 급증하는 日本居留民의 局地的 需要와 密接히 關係되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日本人居留地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會賢洞·南大門通·乙支路 入口에 集結하여 있었다.

3) 1910년대 京仁地方의 大企業과 그 立地

會社令의 實施로 특징지워진 合併 후 10년간의 韓國經濟는 統監府時代의 經濟樣相이 다소 확대되었을 뿐 새로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經濟樣相이 다소라도 擴大된 것은 合併 이후 급격히 增大된 日本人의 韓半島 進出에 의한 것으로 1906년에 在韓 日本 居留民 總數는 83千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合併5년이 경과 한 1915년에는 304千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이들 多大數가 서울·仁川을 비롯한 釜山·元山 등의 開港地에 몰려 있었으니, 이들은 거의가 商業·貿易·運輸·金融·鑛山業을 주로 하는 각종 會社와 有關한 業이었다.³²⁾

29) 山口精, 1910, 朝鮮產業誌(中卷) pp. 538~539, 京城府, 1936, 京城府史(中卷) pp. 1101~1018

30) 趙璣濬, 1973,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亞細亞問題研究所, pp. 323~327

31) 山口精, 1910, 前掲書 pp. 548~549

32) 李鉉淙, 1975, 韓國開港場 研究, 一潮閣, pp. 180~186

1910년대에 京仁地方에 創設된 工業企業 中에 비교적 規模가 큰 것을 골라 보면, 1912년의 朝鮮皮革株式會社, 1916년의 龍山工作株式會社, 1917년의 京城紡織株式會社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이 地方 近代的工業의 嚆矢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朝鮮皮革株式會社는 당시 賤視되던 永登浦 堂山洞의 白丁部落 隣近에 立地하였는데, 漢江과 安養川 사이의 低濕氾濫原에 廉價의 用地를 取得할 수 있었던 점, 당시만 하더라도 漢水以南까지는 居住現象이 遼遠한 狀態이었으나 이미 京仁, 京釜, 京義線의 開通으로 鐵道交通의 要地인 위에 用排水가 便利한 점 등으로 將來가 嚮望된 곳이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第1次大戰으로 인한 皮革需要의 增加와 러시아의 軍需用 皮革의 需要 때문에 低廉한 韓國人 勞動으로 보아서는 매우 有望한 事業이 아닐 수 없었다.³³⁾ 朝鮮皮革株式會社는 從業員 580명의 永登浦 堂山洞工場 이외에도 同系列의 大田工場을 稼動시켰으며, 原皮生産과 鞣皮工程 및 각종 最終的 製品의 加工까지도 겸하고 있었다.

龍山工作株式會社는 당시 韓國 내의 3大工作所³⁴⁾ 중의 하나로 資本金 20萬원으로 출발하여 鐵道貨車 및 機關車 部品の 生産·修理를 비롯하여 각종 産業用 機械器具의 製作·修理를 담당하였다. 1919년에 와서는 同系列의 永登浦工場이 建設되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幹線鐵道의 最上位 結節點에 立地한 것이었다.

1917년에 資本金 100萬원으로 設立된 永登浦洞의 京城紡織株式會社는 1923년에야 繰業이 開始된 韓國初有의 民族系列 近代式 紡織工場이었다. 同 會社의 前身은 당시 光熙門 一帶에 흩어져 있던 家内手工業의 聯合體 ‘京城織紐會社’로서 본래는 疋기, 분합, 허리며, 주머니끈 등을 加工하는 곳이였다.³⁵⁾ 京城織紐會社를 引受받아 發足한 ‘京紡’은 처음에 日本의 豊田織機와 小碓力織機 40臺로 瓦斯織·瓦斯綴이라고 하는

혼합絲織과 苧布 代用으로 漢陽木, 漢陽紗 등을 生産하여 市販하였으나, 1923년부터는 月産 5천필의 廣木을 生産하는 本格的인 紡織工場으로 君臨하게 되었다. 이른바, ‘太極星標’ ‘天桃標’ 廣木은 民族資本에 의한 최초의 近代式 綿織物이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市場圈은 關西地方이었다. 이곳은 韓半島에서 民族運動이 가장 거센 곳이었으며, 愛國同胞들 사이에 製品을 널리 普及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⁶⁾ 한편, 울이 굵고 값이 싼 ‘不老草標’ 綾地는 中國人들 기호에 알맞아서 만주·중국대륙에 널리 販賣되었다. 애당초부터 京紡의 存立은 ① 八道各地의 韓國人 株主들의 聲援으로, ② 愛國同胞들의 需要를 前提로 해서, ③ 韓國人 勞動과 韓國產 棉花(처음에는 印度와 美國 原棉)를 活用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며, 純粹한 民族的 産業資本主義의 한 展開過程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초의 永登浦工場은 敷地 14,000坪에 建物坪數 8,900坪, 綿織機 120臺로 近代式 體貌를 갖추게 되며 후에 와서 黃海道 平山의 南川 繰棉工場과 股票의 股票 繰棉工場을 세워서 原料의 自體供給을 꾀하였다.³⁷⁾

當時의 綿紡 事情으로 보면 原料인 棉花生産에서 綿絲, 綿布에 이르기까지 日本財閥이 獨占하고 있었으니 이미 合併 이전에 進出한 山本萬次郎의 木浦 繰綿工場을 비롯해서 1913년에는 朝鮮棉花株式會社³⁸⁾가 資本金 25萬원으로 木浦와 裡里에 繰綿工場을 세웠고, 1917년에는 三井系의 東洋棉花株式會社가 南北棉業株式會社를 設立하여 역시 木浦에 繰綿工場을 建立함으로써 이들은 韓國에 있어서 棉花의 栽培·繰綿·壓搾·荷造·棉實油·原棉仲介業에 이르기까지 完全 掌握하고 있었다. 繰綿工程을 거친 韓國產 棉花는 日本에 搬出되어 日本 紡織工場에서 綿織物로 加工된 후 다시 韓國市場에 輸入되는 형편이었으니 당시의 綿絲와 綿布時勢는 大阪의 貿易業者나 都賣商에 左右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19

33) 朝鮮銀行, 1919, 鮮滿經濟十年史, p. 148

34) 龍山工作所, 弘中工作, 日本車輛

35) 明治44年, 大正4年 工場名簿 參照, 1976年 5月 7~8日 東亞日報 參照

36) 趙璣濶, 1973, 前掲書 p. 390

37) 朝鮮織物協會, 1943, 朝鮮織維要覽, p. 88

38) 日本棉花會社系列

17년에는 資本金 500 만원으로 三井系の 朝鮮 紡織株式會社³⁹⁾가 設立되어 1921年부터 紡機 15,200 臺, 織機 610 臺로 操業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原料인 棉花의 緞綿工程뿐 아니라, 紡績·紡織工程에 이르기까지 日本財閥이 휩쓸게 된다. 이같은 사정 아래서 民族初有的 近代式 紡織工場이 立地·自生하기란 苦難의 길일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한 京畿道 一帶는 近代工業의 早期成長 地域이고, 植民統治 全年期를 통하여 工産物 生産額의 相對的 附加나 損失의 格差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前述의 여러 事例에 비추어 볼 때, 이 地域이 工業의 早期成長을 가능케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울中心의 京畿地方은 平壤中心의 關西地方과 더불어 오랜 文化中心地이자 동시에 開化의 물결이 일찍이 侵透한 곳이기도 하다. 韓末의 殖産興業政策이 최초로 구체화된 곳도 首都 서울이며, 民族企業의 先覺者들이 新式 工場을 처음으로 차린 곳도 서울과 平壤이다. 서울의 「京城織紐」, 그리고 그 後身인 「京紡」을 비롯해서 서울 長沙洞의 「金德昌 染織工場」⁴⁰⁾ 崇仁洞의 「崔昌 織物」, 昌信洞의 「金敬均 織物」, 그리고 光熙洞 一帶의 群小織物業者들이 그 좋은 事例이고, 平壤에 있어서는 鶴里·將別里 一帶의 양말, 메리야스 編織業者들이 좋은 事例이다. 즉, 早期出發(early start)의 利益과 이에 의한 集積現象은 工産額의 早期成長으로 反映되었던 것이다.

둘째, 서울 中心地域의 工業의 早期成長에는 交通上의 結節性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京仁·京釜·京義線은 모두가 이미 合併 이전에 開通되었고, 湖南·京春線은 1910年代에 개통되었으며 서울을 포함하는 龍山·永登浦는 이들 幹線의 最上位 結節點이라 볼 수 있다. 특히, 道路事情이 좋지 않던 당시에 있어서 鐵道에의 依存은 工場立地에 결정적이었으리라 思料된다.

셋째, 서울 中心의 京畿地方이 早期成長한 이

유로서 專管居留地 設定에 의한 日本居留民의 早期進出과 商品經濟의 早期侵透를 들 수 있다. 이것이 韓末의 商人資本과 手工業을 沒落케 하였음은 두말할 것 없으나 動員할 수 있는 統計資料를 통해서 보면 工場制 工業에 관한 한 道別 工産額의 比重과 道別 日本人 比重과는 매우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음이 증명된다. 표 11은 植民統治의 初期에 해당하는 1910년과 中半期에 해당하는 1925년에 있어서 道別 工産額과 日本人 數를 比較한 것이다. 이 兩數의 피어슨 相關係數는 1910년에 $r=0.9720$, 1925년에 $r=0.8323$ 으로서 工業生産額이 높은 地域은 日本人 人口數도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植民統治初期에 다른 地方에 비해서 相對的으로 工業成長이 현저했던 京仁地方은 日本人 人口가 1910년 현재에 약 55千명, 1925년에는 104千명에 이르러 이것은 韓國內 總日本人數의 각각 31.9%, 24.6%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이들이 관계하고 있는 職業으로 보아도 商業, 交通業, 工業, 公務業이 卓越하며 평양 중심의 平南地方이나 釜山 중심의 慶南地方에 있어서도 이같은 관계는 별반 다를바 없다.

결국, 解放 3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서울을 포함하는 首都圈 一帶는 工業의 過密地域, 全南北을 포함하는 湖南地方은 工業의 後進地域으로 알려 지고있다. 이같은 樣相은 政策의 으로 집착 시정되고 있으나, 循環·累積的 因果關係의 原理에 따라 어느 정도 說明이 가능할 것 같다. G. Myrdal은 開發問題가 이따금 惡循環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富裕한 地域은 더욱 富裕하게, 貧困한 地域은 더욱 貧困하게 되며, ……正常的인 경우에 있어서 地域變動은 相殺的變動(countervailing changes)이 아니고 補助的變動(supporting changes)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은 최초의變動과 똑같은 방향으로 시스템을 조정하게 된다’⁴¹⁾고 하였다. 特定場所에 있어서 工業의 早期出發이 偶然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시작된 過程은 스스로 힘을 얻게 되고, 처음부터 落後된 過程은 힘을 잃어서 地域

39) 敷地 60,000坪에 建物 20,879坪의 釜山凡一洞工場과 후에 와서 釜山鎮 南浦工場 및 沙里院工場

40) 뒤에 東洋染織株式會社로 改稱

41) Myrdal, G., 1963,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Methuen, p. 12

표 11 道別·年別 工産額과 日本人 人口數

		工 産 額				日 本 人 數			
		1910		1925		1910		1925	
경	기	천원	%	천원	%	인	%	인	%
		총	북	6,283 (40.8)		72,577 (24.6)		54,760 (31.9)	
총	남	26 (0.2)		7,080 (2.4)		2,265 (1.3)		7,317 (1.7)	
전	북	264 (1.7)		11,300 (3.8)		7,330 (4.3)		19,566 (4.6)	
전	남	1,666 (10.8)		10,884 (3.7)		7,231 (4.2)		27,167 (6.4)	
경	북	1,050 (6.8)		26,842 (9.0)		8,674 (5.1)		31,628 (7.4)	
경	남	523 (3.4)		37,727 (12.8)		10,697 (6.2)		41,672 (9.8)	
황	래	3,396 (22.3)		29,285 (9.9)		41,692 (24.3)		77,548 (18.5)	
평	남	8 (0.0)		18,243 (6.2)		4,787 (2.8)		14,696 (3.4)	
평	북	1,729 (11.2)		35,659 (12.1)		12,155 (7.1)		34,530 (8.1)	
강	원	359 (2.3)		15,576 (5.3)		5,888 (3.4)		16,239 (3.8)	
합	남	— (—)		11,833 (4.0)		1,403 (0.8)		8,632 (2.0)	
합	북	16 (0.1)		12,331 (4.2)		7,505 (4.4)		20,339 (4.8)	
계		65 (0.4)		6,329 (2.1)		7,156 (4.2)		20,927 (4.9)	
		15,385(100.0)		295,306(100.0)		171,543(100.0)		424,740(100.0)	

資料: ① 工産額은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別, 단, 1910年分은 1911年 12月末 現在

② 日本人數에서 1910年分은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25年分은 朝鮮總督府 刊 簡易國勢調査結果表에 依함.

註: ① 品目別 工産物價額의 合計임.

② 가스·電氣業 및 煙草의 生産額이 除外됨.

間의 不均衡이 생긴다고 判斷한 것이다. 또한, 19세기 美國의 都市成長을 研究한 A.R. Pred는 工業化와 都市成長에 있어서 두 가지 側面的 循環·累積過程을 설명하고 있다. ① 工業의 開發은 人口와 收入增加의 原因이 되며, 이것은 또한 增加된 需要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商業·서비스 部門의 成長을 자극하게 된다. 이같은 擴大의 混成結果는 他的 最小要求를 充足시킴으로써 더욱 工業을 成長시키고 全體的 循環過程을 계속시켜 준다. ② 이러한 乘數效果가 invention과 innovation을 자극함으로써 工業은 더욱 成長되고……, 더욱 빨리 傳播된다⁴²⁾는 것이다. 결국 서울이 포함되는 京畿道는 先發産業에 의한 早期成長이 集積의 利益을 남기고, 이것이 다시 工業의 集中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물론 이러한 原理는 正常的인 資本主義的 經濟下에서 확인되는 것이며, 殖民地의 特殊事情下에서는 그만큼 歪曲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미 이것은 解放 전의 地域別 人口變動이 工業

變動을 따르지 않았던 사실에서 立證되었다. 그러나, 京畿道가 早期成長 地域이며 解放 후 오 늘에 와서도 工業密集地域으로 存立하는 반면에 湖南地方은 變함없이 工業後進地域으로 存立하는 것은 G. Myrdal이나 A.R. Pred의 理論처럼, 長歲月에 걸친 工業化의 循環·累積現象이다 소 歪曲된 상태나마 이 땅에 나타난 결과라 보 기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湖南地方 工業停滯의 要因

工業地域構造의 '動態의 軸'을 考慮할 때, 全南·北이 포함되는 湖南地方은 工業成長에 있어서 전혀 一定 規則的 變動時期를 확인할 수 없는 위에 植民統治 全期間을 통해서 계속 不利한 工業構造 때문에 工業의 後進地域을 면치 못한 곳이었다. 筆者는 앞 章에서 이같은 立地變動類型을 $X \frac{Z}{U_{nf}}$ 로 표시한 바 있었다. 표 12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全北이나 全南이나 간에 工

42) Pred, A.R., 1966, *The Spatial Dynamics of U. S Urban Industrial Growth, 1800-1914*, Cambridge, Mass. M.I.T., p. 25, 또는 1965, "Industrialization, initial advantage, and American metropolitan growth *Geogr. Rev.*, Vol. 55, pp. 164-166 참조.

표 12 湖南地方 工產品 生産額의 立地係數

	전라북도						전라남도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방직	1.38	0.83	1.09	1.12	0.89	0.80	1.35	1.49	1.15	1.36	1.27	2.35
금속	0.88	0.63	0.74	0.53	0.27	0.12	0.78	0.61	0.53	0.53	0.33	0.04
기계	0.18	0.44	0.42	0.57	1.05	1.20	0.29	0.25	0.42	0.18	0.55	0.32
요업	0.91	0.49	0.89	0.68	0.39	0.58	0.70	0.58	0.60	0.53	0.35	0.45
화학	0.38	0.68	0.62	0.56	0.36	0.44	0.45	0.55	1.05	0.52	0.40	0.22
목제품	0.55	0.48	0.68	0.76	0.80	0.74	0.36	0.57	0.64	0.81	1.40	0.84
식품	0.96	1.13	1.20	1.02	1.01	1.17	1.17	1.04	1.06	1.34	1.61	2.22
기타	1.07	1.39	1.04	1.53	2.55	3.11	0.81	0.95	0.97	0.79	1.04	1.00
S/N (%)	5.8	4.5	3.7	4.1	3.5	2.8	7.8	7.5	9.0	8.3	5.9	4.9

資料: 표 10과 同

註: N=全國工產品 生産額, S=s地域 工產品 生産額

業生産의 對全國 比重은 最小 2.8%에서 最大 9.0%를 넘지 못하며, 앞서 京畿地方에서 처럼 全期間을 통하여 볼 때, 대체로 이 比重은 初期에서 末期에 이를 수록 下向構造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표 12에서 매우 주목되는 것은 年別 業種別 立地係數에 있어서 全北의 食品 및 其他部門(주로 在來式手工業)과 全南의 紡織 및 食品部門을 除外하면 한결같이 全國平均 水準을 下廻하고 있는 사실이며, 결국은 紡織·食品·其他部門에 의존된 이른바 初期工業化 段階에 머물러 있는 점이다. 과연, 이곳이 全般的으로 工業化가 沮止되었던 要因이 무엇인지, 소위 '價値의 相對的 追求方式'을 重視하면서 接近하여 보자.

全南·北을 포함한 湖南地方은 工業投資를 誘引할 만한 資源의 所在地라 하기보다는 본래가 농업지대이고, 日人의 농업 및 토지투자가 가장 극심하였던 곳이며, 이에 대한 투자이윤이 기업투자 이윤을 上廻하여 상대적으로 공업적 추진성을 촉진하게 되었던 곳이다. 그러면, 이 地方에 대한 농업 및 토지 투자가 어떻게 進行되었으며, 그것이 기업투자에 비하여 얼마나 有利했는가?

농업 토지에 대한 투자는 淸日戰爭 이후 日本의 大資本家들이 開港地나 地方都市에 진출하여

金貸業으로 土地를 획득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日本의 大財閥이 적극적인 土地投資를 전개한 것은 1905년을 전후한 때부터 合邦까지 6~7년간이며, 특히 日本의 岩崎, 細川, 大倉, 川崎 등의 大資本의 농지투자가 甜目할 만한 것이었다.

細川은 이미 1904년에 全州一帶 3個郡·100餘個 村落에 걸쳐서 약 1,000町步의 大農場을 건설했고, 川崎는 1904년부터 臨陂, 益山, 咸悅 등 3郡에 걸쳐 水田 450町步, 旱田 30町步, 山林原野 150町步의 大農場을 소유했다.⁴³⁾ 大倉은 臨陂, 益山, 金堤, 金溝, 萬頃 諸郡에 걸쳐 水田 2,380町步를 소유하였고, 岩崎의 東山農場은 全州郊外에 水田 600町步, 宮崎農場은 沃溝地方에 487町步를 占有하고 있었다. 이 밖에 光州附近의 旭農場, 羅州附近의 東山農場, 務安의 大內農場 등이 포함되는 湖南地方 주요 농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⁴⁴⁾

- 湖南平野·羅州平野 所在 主要農場 □
- 佐藤農場, 群山居留地 畔,
 - 宮崎農場, 沃溝郡 築洞附近
 - 山崎農場, 沃溝 및 臨陂郡
 - 中西農場, 臨陂 및 益山郡
 - 楠田農場, 臨陂郡 蝶山里
 - 笠井農場, 萬頃郡 新湖洞

43) 趙璣瀟, 1973, 前掲書, p. 117

44) 梶川半三郎, 1911, 實業之朝鮮, p. 264, 小松悅二, 1901, 新撰韓國事情, pp. 275~278, 趙璣瀟, 前掲書, pp. 118~119참조

大森農場, 扶安郡
 熊本農場, 扶安郡
 吉田農場, 金堤郡 白鷗亭
 井上農場, 金堤郡 麻田里
 木場農場, 金堤郡 草南橋
 藤井農場, 全州郡 五山里
 細川農場, 全州郡 大陽村
 東山農場, 羅州郡 榮山浦
 大內農場, 務安郡 自防浦
 浦上農場, 羅州郡 伏岩面
 韓國興業株式會社, 羅州郡

이상은 1907년 현재 湖南地方에 所在했던 有名한 農場에 불과하나 이 밖에 헤아릴 수 없는 群小農場을 포함하여 日人 占有農場은 湖南一帶에 急増하게 되었다.

産米増産計劃이 積極적으로 推進되고 있었던 1929년 당시의 統計를 보면, 土地 30町步 이상을 經營하던 日本人 耕作者 總數가 464人이고 이 중에 全南이 159人, 全北이 102人으로 最多數를 占하였다.⁴⁵⁾ 실로, 全南·北이 占하는 日人 耕作者數가 對全國의 56%를 上廻하였던 것으로 보더라도 湖南一帶의 土地投資가 저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나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특히, 1908년에 창립된 東洋拓殖株式會社는 國有地 占有를 主로하여 1917년말에는 74,000餘町步의 大地主로 군립하면서 湖南에는 裡里와 木浦에 支店을 두어 1929년 현재까지 全南에는 613戶, 全北에는 487戶의 日人 農業移民을 定着시킬 뿐 아니라, 韓國人 地主의 土地를 擔保로 高利 金貸業을 經하였다.

이와 같은 日人 地主 및 農業會社가 이 땅에 容易하게 大量 進出할 수 있었던 것은 法的인 保護를 뒷받침으로 비롯된 것인데, 가령 統監府는 1906년 10월에 勅令 第31號의 土地家屋證明 規則을 公布하고, 이어 同 施行細則과 土地家屋抵當執行 規則 및 同 施行細則을 發布함으로써 日人은 기왕에 所有한 土地의 既得權을 保障 받았고, 또 此後의 土地所有에 대한 安全을 기했던 것이다.⁴⁶⁾ 그리고, 1907년 7월에는 國有未墾地 利用法, 1908년 7월에는 臨時財産整理局官制를

발포하여 皇室財産과 國有財産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이같은 統監府의 措置로 말미암아 日本의 農業會社 및 農業移民이 積極적으로 장려됨과 동시에 이들은 高率小作料에 寄生함으로써 특히 湖南一帶의 농업투자者는 저들에게 더욱더 매력적 인 것이 되었다. 이것이 相對적으로 工業投資를 도의시킨 結果가 됨은 물론이다.

한편, 1910년부터 실시된 朝鮮總督府의 土地 調査事業은 封建的 社會의 支配階級인 收租權者의 이익에 합치되는 方向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日本資本에 의한 土地兼併을 加速化하여, 특히 農業의 適地인 湖南地方 一帶는 工業化를 제쳐 놓은 農業의 收奪 一邊倒의 政策이 심어졌던 것이다.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土地 調査事業은 作業上으로 보아 세 가지 段階로 구분되었다. 土地所有權 調査가 그 첫째 段階이고, 土地價格의 調査가 그 둘째 段階이며, 地形地貌의 조사가 그 셋째 段階이었다. 名色은 土地所有制에 관한 近代化 作業이었으나, 실은 이 過程에서 日本資本과 土着封建 支配階級인 收租權者가 莫大한 土地所有를 法的으로 보장받은 結果를 낳았고, 또한 종래의 半封建的 生産關係를 再編함에 있어서 法的인 보장을 받은 結果 이외에 他面으로는 零細小作農의 大量創出 및 離農流民의 大量創出을 結果했을 뿐이다. 이 같은 結果는 두 말 할 것 없이 韓半島의 穀倉인 湖南一帶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이 地方의 土地가 종래의 生産關係로 보아 收租權이 介在되지 않은 土地라고는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收租權者들은 대부분이 兩班 權勢家들이었으므로 申告主義를 原則으로 한 地主權原의 査定에서 이들은 절대 有利한 立場에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總督府의 基本方針 自體도 收租權者에게 절대 有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韓半島의 北部地方과는 매우 性格을 달리한다. 본래 北部地方은 兩班階級이 적었고 驛屯土이외는 별로 收租權者가 介在할 土地가 적었으므로 自作農의 비율이 한결 높았던 것이다. 표 13은 湖南地方에 있어서 1937년말 현재 自作·

45) 李如星, 金世鎔, 1933, 數字朝鮮研究, 第1輯, pp. 8~9.

46) 趙發濬, 1973, 前掲書, p. 347

표 13 湖南地方의 自小地別 耕地面積, 比率

1937년말

단위: 町

		논		밭		합	
		自作地	小作地	自作地	小作地	自作地	小作地
전	북	34,817	140,869	20,657	48,325	55,474	189,194
전	남	70,257	145,102	129,192	83,721	199,449	228,823
全	國	556,567	1,179,801	1,359,399	1,410,476	1,915,967	2,591,277
전	북	14.2%	57.6%	8.4%	19.8%	22.6%	77.4%
전	남	16.4%	33.9%	30.2%	19.5%	46.6%	53.4%
全	國	12.3%	26.2%	30.2%	31.3%	42.5%	57.5%

資料: 姬野實, 1940, 朝鮮經濟圖表, p. 164.

표 14 民族別 大地主所有 耕地面積, 地主數 (100町步 以上の 地主)

1937년말

			總 耕 地 (A)		大地主所有耕地 (B)		B/A		大地主數
			논	밭	논	밭	논	밭	
전북	日韓	人人	町	町	町	町	%	%	인
			175,686	68,982	33,651	3,670	19.2	5.3	56
전남	日韓	人人	町	町	町	町	%	%	인
			215,359	212,913	36,447	7,772	17.0	3.6	86
全國	日韓	人人	町	町	町	町	%	%	인
			1,736,368	2,769,875	115,788	40,552	6.7	1.5	317

資料: 姬野實, 1940, 朝鮮經濟圖表, pp.164~167 을 著자가 編製

小作地別 耕地面積을 비교 한 것이다. 全國 總計와 견주어 볼 때, 특히 논에 있어서 小作 耕地率이 높고, 논밭을 합쳐서 견주어 보아도 湖南地方은 自作보다 小作 耕地가 卓越한 곳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耕作地는 極少數의 日人 大地主가 所有하고 있었음을 표 14 가 잘 보여 주고 있는데, 논인 경우에 湖南地方에서는 총 면적의 17~20% 를 불과 56~86 인의 日人大單位(100町步 이상 所有)地主가 所有하고 있었다. 하여간에 100町步 이상을 所有한 大地主의 땅이 日本人이 되었던 韓國人이 되었던 間に 全國적으로 보면 논인 총면적의 약 13% 에 지나지 않으나, 全北은 약 30%, 全南은 약 26%에 이르렀던 점으로 보아, 土地投資에 의한 收奪이 他의 그 무엇보다도 매력적이었음을 推測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日本이 湖南地方에 土地投資를 集注

했던 根本的 意圖는 무엇일까. 첫째는 既存의 封建關係를 통한 高率小作料의 收奪과 이에 의한 大量的 對日 米穀搬出이 容易한 점, 둘째는 궁핍한 農民의 脫農이 주로 韓半島 北部에 있어서 鑛工業 勞動者의 賃金을 低廉케 하는 점, 셋째는 小作料가 높고 封建關係가 유지되는 뒤떨어진 나라에서는 利子도 매우 높아서 이것은 日本의 高利貸 金融資本에 매우 有利한 점⁴⁷⁾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韓半島에 있어서 土地所有의 基盤을 確固히 한 日本은 1920년대의 產米增產計劃을 실시함으로써 地主層에게 압도적으로 有利한 地位를 保障함과 동시에 湖南地方의 경우 相對적으로 工業에의 投資는 점점 소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湖南地方은 嶺南地方과 더불어 高率 定租法이 優位를 점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小作權 競爭이 격심하였던 탓으로 小作料 이외에 各種 租稅公課도 또한 小作人에게

47) 金錫淡, 1948, 朝鮮經濟史, 博文出版社, p. 231

轉嫁가 걱정했고, 심지어는 小作契約에 있어서 保證金이나 小作料 前納制⁴⁸⁾가 극심한 곳으로도 이를 따를 곳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土地投資에 대한 收益率을 보장하게 되고, 그것은 곧 地價를 騰貴케 하는 原因이 된 것이다.

湖南地方에 있어서 地價上昇은 당시 日本의 그것보다는 물론이고 他의 어떤 地方보다도 격심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16년 中等 水田 反當 價格이 50圓이었던 것이, 1929년에는 107圓으로 上昇함으로써 1916년을 100으로 본 1929년의 그것은 214에 이르고 있다.⁴⁹⁾ 이 期間에 日本의 그것은 319원에서 523원으로 上昇했을 뿐이다. 또한, 1931년을 基準(100)으로 본 1940년의 農地價格 上昇에 있어서도 논이 344, 밭이 340의 指數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期間의 日本의 논밭이 167의 指數를 보이는 것보다 跛格的으로 높은 것이다.⁵⁰⁾ 地方別로 보아도 湖南의 그것이 越等하여 1938년 현재 中等 水田 反當價格은 全北이 206圓, 全南이 210圓으로 제일 높고, 關西地方의 그것은 150圓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⁵¹⁾ 결국, 農地價格이 騰貴한다는 사실은 農地의 商品化 傾向이 활발함을 暗示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의 投資利率이

보장됨을 뜻하는 것이다.

農地에의 投資利率은 당시의 高利金利를 제외하고는 銀行貸付利率이나 一般株式利率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표 15는 1933~1937년의 全國平均이지만 土地生産力이 높고 高率小作料가 機構的으로 定着한 湖南地方의 경우에는 農地利率과 株式利率과의 格差가 한결 현저했으리라 짐작되고 남음이 있다. 이러한 높은 農地投資 利率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資金의 工業에의 流入을 沮害함으로써 湖南地方으로 하여금 工業의 後進性을 蓄積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韓半島의 西北部 및 東北部 地方에는 이와 正反對로 作用함으로써 工業地域構造의 偏差를 남겨 하였던 것이다.

(4) 後期 成長地域과 重化學工業의 立地

함남·북도와 강원도는 植民統治의 後半期에 급속한 工業成長을 경험했고, 重化學 部門의 相對的 成長이 顯著했던 곳이다. 重化學 部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地域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함경남도의 경우에는 窯業·化學·木材工業, 함경북도는 窯業·化學·木材·金屬·機械工業, 강원도의 경우에는 窯業·化學·機械工業이 주가 된다. 이 중에도 함남·북도의 化學工業은 그 比重이 압도적이며 植民統治 後半期에 있어서 韓半島 工業의 高度成長이나 構造變質의 主役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표 16과 17이 間接적으로 立證하고 있다.

과연, 이곳에 重化學工業이 급속하게 전개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일까. 結論부터 요약하면, 이곳은 그 당시의 日本으로 하여금 軍國主義的 野欲을 충족할 수 있는 몇 가지 利點을 지니고 있었다. 그 첫째는 이곳 一帶에 賦存된 각종 資源을 收奪하여 軍需産業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이고, 그 둘째는 이곳이 日本과 東北滿洲를 연결할 수 있는 最短距離 루우트이므로, 資源의 結合이나 大陸進出로 볼 때 그 位置價値는 매우 중요한 것

표 15 논·밭의 投資利率 및 他의 利率

		단위 : %	
		1933년	1937년
殖銀貸付利率		8.8~7.8%	6.7%
個人間貸付利率		17.6	14.5
韓 國	논	8.5	8.0
	밭	9.0	8.5
日 本	논	N.A	5.5
	밭	N.A	4.9
韓 國 株 式 利 率		6.4	6.4
日 本 株 式 利 率		N.A	5.3

資料 : 殖銀調查月報, 1938年 11月號, pp. 29~30을 著者가 編製

48) 印貞植, 1940, 朝鮮의 農業機構, 白揚社, pp. 175~179, 朝鮮農會編, 1930, 朝鮮小作慣習, 李勳求, 1935, 朝鮮農業論, 參照

49) 角本傳一, 加藤清吾, 1938, “朝鮮의 耕地價格と 其の變遷に就いて”, 殖産調査月報, 11月號, p. 5

50) 鈴木武雄, 1942, 朝鮮의 經濟, 日本評論社, p. 264

51) 藤田強, 1939, “勸銀·殖銀調査を通じて見た内鮮農耕地價の比較”, 殖産銀行調査月報, 7月號, pp. 32~36

표 16 함남·북도 연별 화학공업 생산액

단위: 천원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합	남	83	694	2,050	5,536	68,433	364,688
합	북	19	302	1,511	6,886	22,311	94,383
전	국	4,645	24,272	46,944	54,129	147,834	699,442

資料: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號

註: 品目別 工産物價額을 1931年 이후의 業種分類式으로 編製한.

표 17 함남·북도 화학공업의 지위

단위: %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합	A	2.4	7.0	16.6	29.2	75.3	83.8
	B	1.8	2.9	4.4	10.2	46.3	52.1
남	C	0.1	0.3	0.7	1.7	12.0	19.5
	A	1.5	6.2	23.9	60.2	72.0	53.5
북	B	0.4	1.2	3.2	12.7	15.1	13.5
	C	0.0	0.1	0.5	2.1	3.9	5.0

資料: 표 16과 同

註: A=Si/S, B=Si/Ni, C=Si/N

단, S=特定地域 工産物價額

N=全國 工産物價額

i=特定業種

이었다.

1936年代초만 하더라도 이 地方에 立地한 工場이란 製材所·鐵工所·벽돌工場·倭式 釀造工場 등이 大部分이고, 近代式 工場으로는 元산의 고무工場과 淸津·雄基에 所在한 洞조립工場 몇 몇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⁵²⁾ 그러나, 1940年 版 工場名簿에는 文川의 三井系「小野田시멘트」를 비롯해서 野口系「朝鮮窒素肥料」興南工場, 同系の 永安工場, 淸津의 「北鮮製油」 및 魚油肥工場, 吉州의 「北鮮製紙」등 大規模의 裝置工業이 收錄되어 있고, 軍事機密 관계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1930년까지는 日本窒素本宮工場, 日本 마그네슘 金屬工場, 朝鮮窒素 火藥工場, 日鐵 및 三菱鑛業의 淸津製鐵所, 日本高周波 城津工場, 日本 마그네사이트 化學工場 등 軍需産業과 연관된 각종 工場이 興南·城津·吉州·淸津을 據點으로 存立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함남·북도 海岸에는 群소 魚油

肥工場이 무수히 亂立하게 되는데, 이같은 현상이 1940年代에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地方의 工業에 있어서 가장 큰 原動力은 電力과 地下資源 및 水産資源이며, 따라서 電力을 비롯한 각종 原料에 指向되는 工業이 主軸인 것은 당연하다.

1940年 현재의 調査로는 韓半島 전체의 包藏 水力이 약 500만 kW로 발표되어 있고, 이 중에 약 절반이 鴨綠·豆滿江水系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野口 콘체른」은 1929년에 赴戰江水力 약 20만 kW를 開發하고, 이듬해에 「朝鮮窒素興南工場」의 操業에 들어갔다. 이어서 長津江水電 약 33만 kW, 盞川江水電 22만 kW, 富寧水電 2만 7천 kW가 開發되었고, 地元の 配電을 위해 「咸南合同 電氣株式會社」 및 「北鮮合同 電氣株式會社」가 設立된다. 電力에의 의존이 가장 큰 工業으로는 「朝窒系」興南工場の 硫安·火藥·硬化油를 비롯해서 「日窒系」本宮工場の 石灰窒素·가성소오다·소오다灰·아세톤·브타놀등을 생산하는 基礎化學部門이 있고, 城津의 高周波 特殊鋼 生産과 日窒·朝窒系の 각종 輕金屬 및 貴金屬 生産의 第1次 金屬部門이 있다. 興南의 窒素生産은 물의 電解法에 의한 水素生産方式을 採擇하고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窒素 1톤의 固定에 소요되는 電力 原單位는 17,730 kWh⁵³⁾로 알려져 있었다. 窒素 1톤은 硫安 5톤에 해당하므로 硫安生産의 電力 原單位는 3,500 kWh가 된다.⁵⁴⁾

당시에 발표된 한 事例研究⁵⁵⁾를 보자. 똑같은 물의 電解法에 의한 方法이므로 朝窒興南工場の 硫安肥料 生産에 대한 立地를 追跡하는 데에 크

52) 朝鮮總督府, 1927, 朝鮮の物産, pp. 526~583

53) 水素抽出에 15,000kWh, 질소抽出에 180kWh, 兩者의 合成에 2,250kWh……合計 17,730 kWh

표 18 關北地方 主要 工業企業體 (重化學部門)

1940年現在

會社名	製 品	立 地
朝窠系 朝鮮窠素肥料	철강·아연·금제련·기계기구·화학·글리세린·硬化油·연마제·탄소제품·硫磷安·硫安	興南
日本 마그네슘	마그네슘·알루미늄	"
朝鮮 人造石油	鑛物油	永安·阿吾地
日窠系 本宮工場	공작기계·연마제·탄소제품·가성소오다·카아바이드·소오다灰·아세톤·보타놀·인조비누·大豆油·석회질소·硅藻鐵·구리고울	興南
威興合同木材	목재	威興·長津
日本 高周波	특수강합금	城津
日本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시아·耐火벽돌·炭酸마그네슘	"
三菱 鑛業	철강	清津
日本 製鐵	철강	"
北 鮮 商 工	제철재생품	"
住友 元山製鍊	금제련	元山
北 鮮 製 鋼	주강·광산기계	文川
小野田시멘트	시멘트	文川·古茂山
北 鮮 酸 素 工 業	암축산소	清津
北 鮮 硫 黃	二硫化炭素	興南
朝鮮 製 油	亞麻油	端川
北 鮮 產 業	大豆油, 油粕	清津
朝鮮 油 脂	글리세린·硬化油·魚糧·魚油·魚油粕	清津·城津·遮湖·漁大津
北 鮮 製 紙	化學펄프	吉州

資料：朝鮮總督府 殖産局 編, 朝鮮工場名簿, 1942年版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硫安 1톤 生産에 所
要되는 총 경비는 自家發電인 경우에 62 원, 購
入電力인 경우에는 77 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
고, 이에 소요되는 電力 3,500kWh의 값은 前
者의 경우 약 17 원, 後者의 경우 32 원으로서,
이들은 硫安 1톤 生産의 총 경비에 대한 각각
28%, 42%를 차지한다. 결국, 「野口 콘체론」이
赴戰江 水電을 開發하고, 여기에서 얻은 電力

을 背景으로 肥料工場을 세운 것은 前述과 같은
구체적 利點 때문이었던 것이다. 「朝窠 興南工
場」이나 「日窠 本宮工場」이나 간에 肥料 이외에
도 각종 化學製品·金屬品 등의 生産을 傘下에
각각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곧 값싼 電力을 背
景으로 하면서 이들 企業이 生産한 製品 相互間
의 補足關係를 最大로 考慮한 때문이었다.⁵⁴⁾
富寧水電 2만 7천 kW의 電力은 곧 富寧에 所

54) 硫安은 固定된 窠素, 즉 合成 암모니아에 硫酸을 中和反應시킴으로써 얻어지는데, 興南工場은 端川의 硫化鐵을 利用하여 製鋼過程에서 硫酸을 回收하여 硫安生産의 原料로 使用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鐵鋼 및 化學工業이 완전히 同一場所에서 複合體를 이루는 셈이다.

55) 川西正鑑, 1939, 工業立地の研究, 日本評論社 pp. 443~446

56) 예를 들면 朝窠興南工場의 硫安生産·硫化鐵을 처리하는 製鐵所·硬化油 生産을 겸한 것은 製品 서로 간에 補完·補足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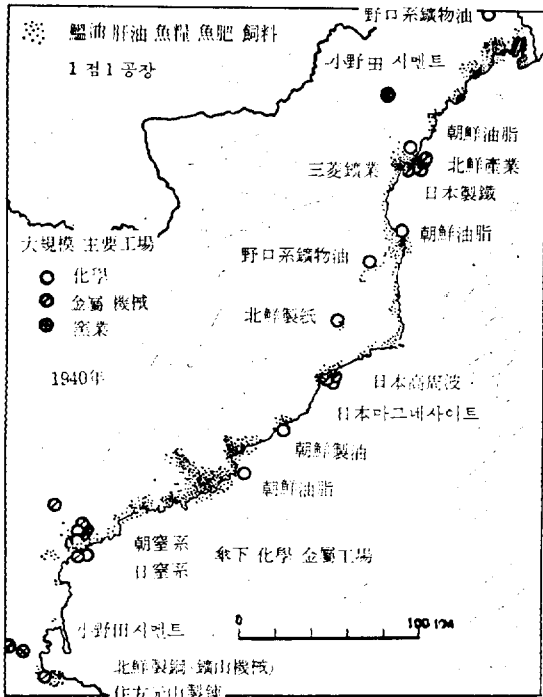


그림 4 關北地方 主要工場分布(重化學部門)

在한 「朝鮮電氣冶金工場」을 위한 것이며 石灰室素·카바이드 생산에 쓰인 것이다. 石灰室素의 生産에 있어서는 生石灰와 炭素材의 混合物을 電

爐에서 加熱하는 과정에서 많은 電力을 所要하게 되며, 加壓소오다 生産에 있어서는 電力原單位는 電解法인 경우 噸當 2,800~3,400 kWh 로서 總 生産비에 대한 에너지 費用率은 49~53 % 에 이른다.⁵⁷⁾

이 地方의 電力을 背景으로 성립한 金屬工業으로서 城津의 高周波 特殊鋼 工場은 1000 사이클 이상의 高周波 電流를 電爐에 통합으로써 발생하는 熱을 利用하여 高級 炭素鋼이나 合金鋼을 製造하는 工程이 주가 된다. 그리고, 興南의 「日本마그네슘 金屬工場」은 마그네사이트 原鑛을 鹽化 마그네슘으로 만들어 電解함으로써 마그네슘을 抽出하는 工程이 주가 되므로, 이같은 金屬工業은 역시 電力에 크게 指向된 立地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端川·吉州의 마그네사이트 原鑛과 이곳 電力이 結合된 立地로는 興南의 「野口系」 朝窠 이외에도 「朝鮮電氣株式會社」가 계획한 洪原의 알루미늄 工場,⁵⁸⁾ 城津의 「日本마그네사이트 化學工業株式會社」⁵⁹⁾가 좋은 예이다.

咸南·北 一帶에 立地한 工場으로서 鐵鑛 및 金鑛 資源에 指向한 것으로는 三菱鑛業과 日本製鐵 株式會社가 建設한 淸津의 製鐵工場,⁶⁰⁾ 그리고 朝窠系의 興南製鐵所 및 製鍊所, 住友系 元山製鍊所, 威興의 日窠系製鍊所 등이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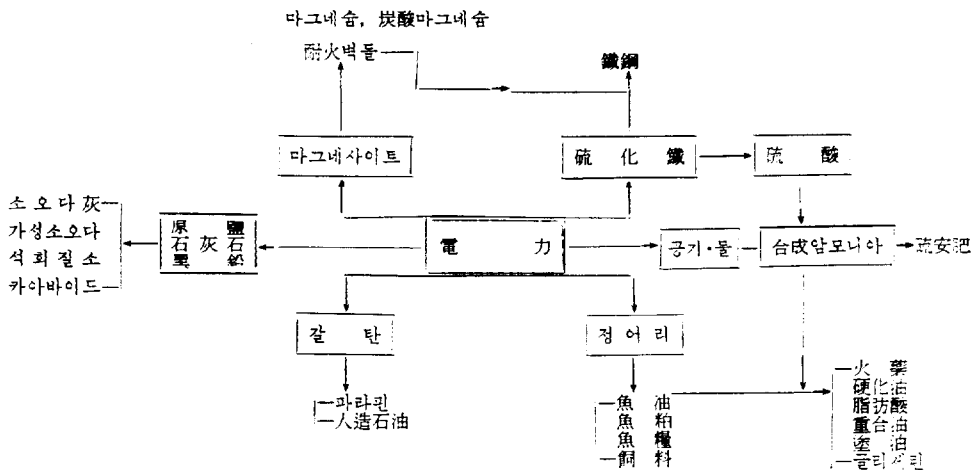


그림 5 野口系 重化學工業의 複合關係

57) 北原三郎, 1961, 『ソーダ·鹽素』, 春秋社, p. 48

58) 마그네슘을 利用한 配合金屬으로 알루미늄·아연·망강 등이 있다.

59) 城津工場에서는 耐火벽돌·炭酸마그네슘을 제조하였다.

60) 製鐵用 有煙炭은 日本의 北海道 및 九州炭이 공급되었다.

地方의 鐵山으로는 端川·利原·茂山이 중요한데, 前二者는 埋藏量은 적으나 含鐵量 52%의 褐鐵鑛·磁鐵鑛으로서 그 活用價値가 컸고, 後者는 含鐵量 40% 미만의 磁鐵鑛으로서 品位는 낮으나 그 방대한 埋藏量에 重要性이 認定되고 있었다. 淸津의 三菱鑛業은 이것을 活用하기 위해서 貧鑛處理에 적합한 Krupp's Renn 回轉爐를 設置하고 屑鐵代用品으로 쓰이는 粒狀鐵 Luppe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威南北 一帶의 金鑛으로는 威南의 大嶺·新興·德洞鑛山, 威北의 靑岩鑛山이 開發되었고 元山·威興·興南의 製鍊所는 곧 이들 金鑛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地方의 石炭資源과 軍需産業과는 1932年 이후 밀접히 關聯된다. 「野口 큰채론」은 이 地方一帶에 賦存된 褐炭을 低溫乾溜하여 各種 石油類·파라핀·半成코오크스 生産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明川의 永安에 「朝鮮窒素 永安工場」을 세웠고, 이어서 日本 海軍의 後援으로 阿吾地의 灰岩洞에 「朝鮮石炭工業」 阿吾地 工場을 稼動시켰다. 이 地方의 褐炭은 揮發性分 35~45%, 發熱量 5,000~6,500cal, 固定炭素30~40%로서 直接燃料로 사용하기에는 不適하지만 原油供給에 制限을 받던 當時에는 資源의 擴大利用을 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이의 開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더구나, 이곳 一帶의 褐炭埋藏量은 당시의 推定으로도 약 3억 6천만톤으로서 韓半島 총 매장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19 關北地方 褐炭埋藏量 (1940년)

威興	炭田	20만톤
穩城·鏡城	炭田	700 "
慶源	炭田	7,000 "
慶興	炭田	3,000 "
會寧	炭田	11,220 "
鏡城	炭田	5,248 "
吉明	炭田	9,000 "
合水	炭田	200 "
計		36,388 "

이밖에 이 地方의 水産資源을 背景으로 1930年代에 크게 일어난 産業으로는 咸南·북의 정어리漁業과 魚油肥工業이 있다. 정어리에서 抽出하는 魚油는 他의 化合物이 添加됨으로써 硬

化油·脂肪酸·塗料油·製革油·火藥·그리세린 등 高級 化工劑로 加工된다. 關北海岸 一帶에 亂立한 零細의 魚油肥工場은 魚油의 抽出을 大宗으로 하면서 肥料用 魚粕과 飼料用 魚粉의 加工을 겸하는 工場이 대부분이고 대체로 정어리가 揚陸되는 地點에 立地하였다. 이에 대해서 大規模의 硬化油 工場은 이들 零細業體로부터 魚油를 收買하여 一貫作業을 통한 各種 化工劑를 만들어 내는 곳이므로, 가능한 한 魚油 收買의 便益에 關係되는 立地를 택할 것이다. 가령, 「朝鮮油脂」系列의 淸津·城津·漁大津·遮糊 工場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한편, 朝室 興南工場과 같은 基礎化學 部門이 魚油를 收買하여 硬化油·火藥 등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同一企業에서 나오는 製品 相互間的 結合·補足·補完·補間性을 考慮할 수 있는 立地가 選擇된다. 그림 4와 같이, 零細의 魚油肥工場은 關北 海岸一帶에 亂立하여 있고, 특히 新창 중심의 北靑, 雄基 중심의 慶興, 그리고 利原·淸津·明川 等地가 가장 현저한 集中을 보이고 있다.

표 20 關北地方 零細의 정어리加工 工場

		1940년 현재	
市·郡名	工場數	主要 立地	
北靑	151	신창·양화·신포	
慶興	91	웅기·서수라	
利原	68	이원·차호	
明川	62	하포·보촌·양화	
淸津	60	정진	
洪原	42	홍원·삼호·경포·중호	
鏡城	39	어대진·경성	
威州	26	홍남·서호·퇴조	
羅津	27	나진	
富寧	23	소청·이진	
城津	21	성진	
元山	13	원산	
端川	11	단천·여해진	
定平	9	정평·지경	
吉州	2	동호	
德原	3	덕원	
關北 總計	648		

資料: 표 18과 同

그러면 魚油肥 및 硬化油의 基本 原料인 정어리 漁業은 如何하였던가. 韓半島의 東北海岸에

표 21 정어리 漁獲高 및 加工實績

年 別	A. 총어획고	B. 정어리어획고	B/A	C. 加工用 정어리 소비	C/B	魚油生産
	톤	톤	%	톤	%	톤
1932	1,168,179	275,904	23.6	258,804	93.8	30,876
' 33	1,007,258	336,752	33.4	325,103	96.5	39,422
' 34	1,393,449	580,311	41.6	566,518	97.6	47,858
' 35	1,503,219	800,407	52.2	N.A	N.A	107,754
' 36	1,668,229	987,788	59.2	976,928	98.9	113,194
' 37	2,115,785	1,388,215	65.6	1,268,069	91.3	140,453

資料：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 朝鮮支部編, 1939年, 朝鮮經濟年報, pp. 183~185
 註：N.A=not available

정어리의 洄遊가 활발하게 된 것은 대체로 1923년경부터이며, 이미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 漁獲高에 대한 정어리 漁獲高는 20%를 上廻하기 시작했다. 표 20에서와 같이 정어리 漁獲은 累年 激增하여 1937년에는 약 140만톤, 총 漁獲高에 대한 66%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單一魚種의 漁獲高로는 世界的인 것이었다. 정어리는 極히 短期間에 多量으로 漁獲되기 때문에, 食品에의 消費는 極히 一部分에 지나지 않고 90% 이상이 揚陸 現地에서 加工되었다. 정어리 魚油는 火藥을 비롯한 軍需用 化學工業의 原料로서 重要되었기 때문에, 總督府의 強制的 統制下에서 「朝鮮鱈油肥製造 水産組合聯合會」와 「日本油脂」 「朝鮮油脂」의 3社가 比率를 割當하여 收買하였던 것이다.⁶¹⁾

이상은 주로 韓南·북도의 重化學工業과 資源과의 연결을 分析한 것인데, 韓南·북도의 重化學工業 成長에 관한 다른 또 하나의 要因으로서 關北의 位置價値를 看過할 수 없다. 日本이 東北滿洲와의 連絡을 最短距離에서 行할 수 있는 길이 關北地方을 通하는 일이다. 따라서, 關北地方의 開發은 滿洲에의 進出을 容易하게 할 뿐 아니라, 關北地方 자체의 資源을 收奪할 수 있는 一石二鳥의 利點이 있었던 것이다. 우선, 日本은 關北地方과 滿洲를 연결하는 鐵道로서 圖佳線(圖們~佳木斯), 京圖線(圖們~新京), 朝開線(朝陽川~上三峯)을 廣軌로 敷設하였고, 既敷設된 威鏡線 중에 南陽~淸津間 鐵道の 複線化를 企圖하였다. 이들 鐵道는 東北滿洲에 대한 日本商品의 販賣와 滿洲로부터의 大豆 및 地下資源

의 流出을 容易하게 하였으니, 「北鮮製油」와 「日窠本宮工場」의 大豆油 生産은 바로 이같은 鐵道를 背景으로 成立한 것이었다. 한편, 日本과 關北地方과의 빈번한 海上輸送을 考慮해서 日本은 國策會社 「日本海汽船」을 設立했고, 소위 關北三港으로 알려졌던 雄基·羅津·淸津을 비롯해서 興南·城津·端川·元山 등의 諸港은 商港으로서의 役割보다도 工業港으로서의 機能을 중시하게 되었다. 저들은 日本의 「北陸工業地帶」와 韓半島의 關北海岸을 다 같은 電力型 軍需工業地帶로 묶음으로써 이른바 東海의 自國 湖水化를 꾀하고, 나아가 關北地方을 東北滿洲에의 前進基地로 삼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日本이 大陸侵略을 本格化하던 時期는 동시에 關北地方의 資源開發이 촉진되던 時期로서 統治 後半期의 高成長은 바로 이같은 사실이 반영된 結果인 것이다.

(5) 小 結

본 연구는 日帝下 韓國의 工業立地 構造를 動態的 次元에서 解明한 것이다. 工業地域 構造의 時間的 變化가 어떤 明確한 類型으로 捕捉될 때 筆者는 이것을 '工業地域 構造의 動態的 軸'으로 看做하고, 이것이 성립된 要因을 分析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動態的 軸'을 확인하는 作業은 comparative gain or loss를 算出하기 위한 V.R. Fuchs의 연구를 援用하였으며, 成立要因의 分析에는 각종 文獻資料에 의존한 바 크다. 解放 전 韓國의 工業立地 構造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動態的 軸'을 形成하는 것으로서 ① 日帝 植民統治 初期에 工業의 高度成長을 경험

61)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 朝鮮支部編, 1939, 朝鮮經濟年報, 改造社, p. 185

한 京畿地方, ② 植民統治 全期間을 통하여 계속 工業 後進性을 면치 못했던 湖南地方, ③ 植民統治 後半期에 와서 高度成長을 경험한 關北地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京畿地方은 韓國에 있어서 近代式 工場工業이 개시된 곳으로서 植民初期에 高度成長을 경험한 이후 解放 당시까지는 그다지 큰 立地變動이 없었고, 多様な 業種構成으로 特徵지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서 湖南地方은 처음부터 精米業·綿工業·在來의 手工業에 의존된 工業構造를 特色으로 하여 解放 당시까지 계속 低成長을 면치 못하였으며, 關北地方은 1925~1930년부터 軍需的 重化學工業을 바탕으로 높은 成長을 實現하여 短時日 내에 激烈한 立地變動이 나타난 곳이다. 이와 같이 解放 전 韓國의 工業은 처음에 韓半島中部로부터 나중에는 東北地方으로 有利하게 전개되는데, 京畿·湖南·關北地方과 같은 명확한 地域類型을 基軸으로 해서 이들의 性格이 서로 混成된 몇 개의 中間類型이 成立할 수 있고, 地域을 細分하여 微視的으로 接近할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段階의 많은 sub-system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京畿地方이나 關北地方이나 간에 地方 内部에 存立하는 몇 개의 都市間에도 小規模의 '動態的 軸'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는 차후의 論文에서 이것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면, 이러한 樣相의 動態的 軸이 성립한 요인은 무엇일까. 京畿地方은 日本人의 居留가 일찌기 시작된 곳이며, 日本人居留者數가 가장 많았던 곳이다. 이 땅에 移植된 初期의 工場工業은 그 대부분이 日本人에 의해서 日本人 專管居留地 및 그 隣近에 立地하였다. 이것이 本質的 意味의 韓半島 工業化는 아니라 할지라도 日本人의 早期進出 地域은 그만큼 商品經濟의 早期 侵透를 結果했고, 이것은 나아가 近代式 工場制 工業의 存立을 가능케 한 것이다. 또한, 이 地方은 서울과 같이 人口稠密한 오랜 文化中心地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開化의 물결이 일찌기 侵透했을 뿐 아니라, 서울의 경우는 鐵道交通의 最上位 結節點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 仁川

을 중심으로 植民統治의 初期에 簇生한 工場들은 早期出發의 利點을 享受하면서 동시에 都市化經濟를 蓄積해 나가게 되었다. 이 地方의 工業이 일찍부터 무수한 異種部門으로 構成된 것부터가 都市化經濟를 反映하는 것이며, 多様な 文化와 需要를 背景으로 하면서 存續하였기 때문에, 韓半島 全體의 工業構造가 크게 달라지는 時期에도 이 地方의 工業은 큰 變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全南·北이 포함되는 湖南地方은 植民統治 全期間을 통해서 계속 工業의 後進性을 면치 못한 곳인데, 이것은 湖南地方의 農業土地에 대한 投資利率이 相對的으로 工業에의 投資利率을 壓倒함으로써 나온 결과이며, 따지고 보면 湖南地方은 日本에의 食糧供給을 위한 植民地의 國土編制의 한 희생물이었다 할 것이다.

1930年代의 韓半島 工業成長과 構造轉換은 韓南·북도 一帶의 重化學部門이 主導한 것이다. 日本이 이 地方을 重化學工業地帶로 編制한 것은 日本의 '北陸工業地帶'와 흡사한 立地條件을 利用하여 韓半島의 關北地方과 이곳을 連結함으로써 東海를 '自國 湖水化'하고, 나아가 東北滿洲로 進出하는 前進基地로 삼고자 한 때문이었다. 이 地方의 工業은 전적으로 이곳 一帶에 賦存된 電力·地下資源·水產資源에 의존된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日本軍需産業의 一翼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國土에 刻印된 日本에 의한 植民地의 工業地域構造는 1960年代 이후의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으로 급속히 消印되고 있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으나, 地域開發의 循環·累積的 因果關係가 작용하는 한 開發成果의 地域的 差異는 이미 先行時代的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現在의 韓國 工業地域構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東國大 教授)

A Study on the Localization Processe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1910~1945

—A Dynamic Pivot of Regional Structur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Kie Joo Hyung

Summary:

This is a study of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More precise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ncipal direction of locational changes and to define the factors bringing about the changes. The study covers the years 1910~1945, and the basic area unit of analysis is the Do, the administrative province.

1. In the initial stage under Japanese rule,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of Korea favorably evolved in Kyonggi Province characterized as a producer of various daily necessities. The north eastern provinces of Korea where available materials were abundant rapidly industrialized in the later stage, especially in the chemical and metal sectors including war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 southern part of Korea, Cheonnam and Cheonpuk province, was continually depressed in terms of manufacturing growth.

2. The author regards the forgoing types of locational changes as "a dynamic pivot" or "dynamic basic frame" of the manufacturing regional structure, because these were the most typical changes of manufacturing location in colonial Korea. If this study extends in detail to micro-regional units, many sub-systems of "dynamic pivot" which exist in terms of interurban differentials in growth would be more accurately defined.

3. The main factors constructing such a dynamic regional structure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one is how the Japanese capitalism and their colonial policy operated on Korea, and

the other is what kinds of the locational conditions influenced it.

4. Modern types of factories in Korea were initially located in Kyonggi Province including such urbanized areas as Inchon and Seoul. These initial factories, although their scales were not so large, had close relations to population, especially to Japanese residents. The economies of transportation and urbanization prompted more and more the advantages of manufacturing location, which stimulated further growth of the commercial and service sectors.

5. After the early 1930's,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in Hamnam and Hampuk Province was due to the advantageous strategic location connected to the northeastern part of Manchuria, and to various raw materials which were useful to the war industries of Japan. The Japanese militarists attempted to make the northeastern coast of Korea a strategic industrial belt just as the Hokuiku industrial belt which is located in the Donghae side of the Japan, because it was not only a shortcut connecting the Hokuiku with the Manchuria but also a favorable location from which such available resources as hydroelectric power, iron ore, lignite, magnesia, lumber and sardine were easily extracted.

6. Chonnam and Chonpuk Province were sluggish in manufacturing growth and sacrificed as a food supplier for Japan because of its advantage not only of more level land but of a more permissive climate for paddy cultivation. As far as the paddy cultivation in Chonnam and Chonpuk was concerned, the rent for tenancy was generally so high

that the capital investment in agricultural land between 1907 and 1930 was rapidly encouraged by Japanese financiers. The vast capital which Japanese landholders accumulated by means of colonial exp-

loitation was reinvested only in agricultural land or usury rather tha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is a decisive reason for the backwardness in the manufacturing of Chonnam and Chonpuk.